

리아호나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제10회 국제 미술품 공모전
하이라이트, 22쪽

구주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과 집을 준비하십시오, 10쪽

21세기를 맞는 교회 교육에 대한 벨라드
장로의 말씀, 28쪽

체코슬로바키아의 난민이셨던
부모님의 신앙, 36쪽





“그런즉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더 나은 세상, 곧 참으로 하나님 우편의 처소를 바랄 것이요, 이 소망은 신앙에서 비롯하여, 사람의 영혼에 닿이 되어, 그들로 확실하고 굳건하며, 늘 선행이 넘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라 하였더라.”

이디서 12:4



메시지

- 4 제일회장단 메시지:
이생에서의 평안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 7 방문 교육 메시지:
의로움 속에 깃든 가족의 기쁨



표지
앞: 우리로 그분을 경배하게 하라, 테이나 마리오 우드, 교회 역사 박물관 제공, 복사 금지.
앞표지 안쪽 사진: iStock/Thinkstock.

특집 기사

- 10 주님을 맞이할 장소를 예비합니다
제럴드 코세 감독
우리 각자에게는 구주께서 오실 때를 준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14 은혜의 신성한 힘
제임스 제이 해물러 장로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은혜를 필요로 한다. 이 가능하게 하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여섯 가지 방법이 있다.
- 22 제10회 국제 미술품 공모전:
들려주세요 예수님 이야기를
구주를 묘사하는 열여섯 개의 작품을 감상해 본다.
- 28 연구와 신앙으로
엠 러셀 벨라드 장로
효과적으로 복음을 배우려면 연구와 신앙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하며, 학생들이 이 두 가지를 하나로 통합하도록 돕는 데는 교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 36 신앙과 자유를 찾아서
에바 월버거
자유를 찾아 탈출하고 피난을 다니는

과정에서 우리 부모님은 여러 가지 면에서 복음의 축복을 경험하셨다.

교회 본부 기사

- 8 구주께서 보여 주신 방법으로 가르침: 하나님을 만날 준비
데브 지 듀란트
- 40 후기 성도의 소리
- 80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의 진정한 본질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44 신앙, 소망, 사랑:
 하나로 엮여 있는 덕목
 치 흥 (섬) 웅 장로
 신앙, 소망, 사랑이 하나로 엮일
 때, 그것들은 우리가 더 참되게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이끌어 줄 수
 있다.

48 행복한 결말을 향하여!
 유리 큐테포프
 꼭 성전에서 결혼하리라
 다짐했었는데, 주님께서서는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내 영원한 동반자를
 찾도록 인도해 주셨다.



이번 호에 숨겨진
 리아호나를
 찾아보세요.
 힌트: 여러분은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누나요?

50 어떤 힘을 선택할 것인가
 마이클 피켓
 프로 보디빌더가 되겠다는 내 꿈이
 바로 눈앞에 있었다. 하지만 얼마전
 제출했던 선교사 추천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52 진정한 액션 히어로가 되자
 샬럿 라카발
 힘써 앞으로 나아간다는 말은, 겁이
 나고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행동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56 질의응답
 경전 공부가 너무 힘듭니다. 경전을
 공부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58 선물보다 큰 것
 에멀린 알 월슨
 올해 크리스마스에는 어떤 선물을
 줄 것인가? 이 퀴즈를 풀어 봄으로써
 여러분이 얼마나 베푸는 사람인지
 확인해 보자.

61 나도 선교사가 필요해
 가브리엘 코스타 실바
 나는 외롭고 친구가 필요했다. 하지만
 도움을 간구하는 내 기도의 응답이
 선교사들이라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

62 포스터: 미루지 마십시오.

63 교회 지도자들의 답변:
 인내심을 갖는 법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64 조금 다른 성탄절
 제인 맥브라이드 초아트
 부모님께서 이혼하신 후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크리스마스가 예전처럼
 기쁜 날이 될 수 있을까요?

**66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생활하는
 어린이들: 블레시가 나누는 축복**

68 물몬경의 영웅들: 모로나이의 권고

69 나는 물몬경을 읽을 수 있어요

**70 사도들의 답변: 어떻게 하면 구주를
 더 가까이 느낄 수 있을까요?**
 데일 지 렌랜드 장로

71 특별한 증인 카드

75 우리들 이야기

76 물몬경 이야기:
 모로나이의 특별한 약속

79 색칠하기:
 나는 우리 가족을 사랑해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한국어판 잡지

제일화장단: 토마스 에스 문슨, 헨리 비 아이머링,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십이사도 정원화: 러셀 엠 넬슨, 델린 에이치 욱스, 엠 러셀 벨라드, 로버트 디 해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쿠엔틴 앨 쿡,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닐 앨 앤더슨, 로날드 에이 래스டன், 캐리 이 스티븐슨, 데일 지 랜랜드

편집자: 조셴 더블유 시타리

부편집장: 제임스 비 마르티노, 캐럴 에프 맥콩키

고문: 브라이언 케이 에쉬튼, 랜들 케이 베네트, 크레이그 에이 카돈, 험벌 에이 에스플린, 크리스토퍼 콜든, 더글라스 디 홀츠, 레리 알 로렌스, 캐롤 엠 스티븐슨

관리 책임자: 피터 에프 에번즈

운영 책임자: 빈센트 에이 본

교회 잡지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

비즈니스 관리자: 가프 캐넌

관리 편집인: 알 발 존슨

관리 부편집인: 라이언 카

부출판인: 매간 사이츠

기사 작성 및 편집 팀: 브리트리니 비에티, 데이비드 딕슨, 데이비드 에이 에드워즈, 매튜 디 플리튼, 로리 플러, 게리 에이치 가프, 라린 포터 건트, 질 크리스틴 해링, 샬러 라카발, 마이클 알 모리스, 에릭 비 머독, 셸리 존슨 오데커크, 조슈아 제이 퍼키, 켄 핀보로우, 리처드 엠 롬바, 민디 앤 셸루, 폴 벤덴버그, 머리사 윌슨

편집 인턴: 마거릿 엠 윌든

관리 미술 책임자: 제이 스킵트 크누센

미술 책임자: 태드 알 피터슨

디자인: 저넷 앤드류, 페이 피 앤드러스, 시 킴볼 보트, 토마스 차일드, 데이비드 그린, 콜린 헝클러, 에릭 피 존슨, 수잔 로프그렌, 스콧 엠 웨이, 마크 더블유 로빈슨, 레이철 스미스, 브래드 테어, 케이 니콜 워너호스트

디자인 인턴: 엘리사 존슨

지역 재산 코디네이터: 클레트 네베커 오온

제작 관리자: 제인 앤 피터슨

제작 팀: 콘니 바솔프 버릿지, 줄리 버넷, 브라이언 더블유 지기, 드니스 커비,

지니 데이 낱슨, 가일 타데 러퍼터, 데렉 리차드슨

사건 인쇄: 제프 엘 마틴

인쇄 책임자: 스티브 티 루이스

배부 책임자: 스티브 알 크리스텐슨

미국과 캐나다 이외 지역에서는 store.lds.org에서, 또는 현지의 교회 배부 센터, 혹은 의도, 지부 지도자에게 리아호나를 신청하거나 구독료를 문의하십시오.

통권: 제609호, 제53권, 제12호

발행: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16년 12월 1일(월간지)

발행인: 정동환

편집 및 번역 책임자: 백길환

발행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서울특별시 중로구 자하문로 152

인쇄인: 한국화술정보(주) 채종준

리아호나 신청 및 문의

홈페이지: <http://liahona.or.kr>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이메일: liahona-korea@ldschurch.org으로 신청서를 전송합니다.

(*교회 잡지 구독 신청서(Excel)는 www.lds.org "물품신청" - 교회 잡지

구독"에서 다운로드합니다.)

전화: 리아호나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십시오.(전화 070-4816-2500)

구독료: 1년 구독료는 7,000원, 권당 가격은 700원입니다.(해외 구독은 개별

문의 바랍니다.) 아래 계좌로 입금해 주십시오.

예금주: (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신한은행 100-001-389810, 우체국 010041-01-000240

원고와 문의 사항 liahona.lds.org에 올라오면, 또는

liahona@ldschurch.org에 이메일로 보내시거나 다음 주소로 우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Liahona, Rm. 2420,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0024, USA.

리아호나 ("나침반" 혹은 "지시기"를 뜻하는 문물경 용어)는 한국어 외에 다른 언어로 출판됨.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라트비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아나니아어, 마살어, 말라가시어, 몽골어, 베트남어, 불가리아어, 비슬라마어, 사모아어, 세부어, 스와힐리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아르메니아어, 아이슬란드어, 알바니아어, 에스토니아어, 영어, 우르두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중국어(간체자), 체코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키리바티어, 타갈로그어, 타히티어, 태국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헝가리어 (발행 횟수는 언어에 따라 다름)

© 2016 Intellectual Reserve, Inc. 판권 소유. Printed in Korea.

*리아호나*에 실린 기사 및 시각 자료는 교회 및 가정에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시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시각 자료는 복사 제한 연구가 있는 경우 복사를 금합니다. 관건에 관한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이메일: cor-intellectualproperty@ldschurch.org

For Readers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December 2016 Vol. 40 No. 12. LIAHONA (USPS 311-480) English (ISSN 1080-955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2.0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 (American Express, Discover, MasterCard, Visa) may be taken by phone or at store.lds.org. (Canada Post Information: Publication Agreement #40017431)

POSTMASTER: Send all UAA to CFS (see DMM 507.1.5.2) NONPOSTAL AND MILITARY FACILITIES: Send address changes to Distribution Services,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USA.

가정의 밤 제언

이번 호에는 가정의 밤에서 활용할 기사와 활동이 실려 있다. 다음은 두 가지 예이다.



“주님을 위한 장소를 준비하기”, 10쪽: 코세 감독은 구주의 오심을 준비해야 하는 우리의 책임을 상기시켰다. 주님을 위한 장소를 준비하는 한 가지 방법은 집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다. 노숙자 쉼터에서 자원 봉사하기, 보호 시설에 필요한 물품 모으기, 교회 인도주의 기금에 기부할 기금 조성하기, 지역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하기 등을 고려해 본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집을 떠나 있는 난민들과 우정을 쌓는 것과 같이 장기적으로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토론해 볼 수도 있다.

“어떻게 하면 구주를 가까이 느낄 수 있을까요?” 70쪽: 분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에 크리스마스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구주의 모범을 일년 내내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은 어떻게요? 그리스도애 중심을 더 잘 둔 가정을 만들기 위한 방법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집에 구주의 그림 걸어 놓기, 매주 구주에 대한 성구 외우기,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해 더 세심하게 노력하기 등과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한 아이디어를 실행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여러분이 얼마나 그리스도에게 더 가까워지는지 일기장에 적어 보세요.

인터넷 활용하기

*리아호나*와 그 밖의 교회 자료를 languages.lds.org에서 여러 언어로 볼 수 있다.

[facebook.com/liahona.magazine](https://www.facebook.com/liahona.magazine)에서 영감에 찬 메시지, 가정의 밤 제언, 그리고 친구 및 가족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료를 찾아본다. [페이스북 페이지는 영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로만 제공됩니다.]

이번 호 주제

숫자는 각 기사의 첫 장을 나타냅니다.

- 가르침, 7, 28
- 가족, 7, 40, 64, 79
- 간증, 28
- 개척자, 36
- 결혼, 28, 48
- 경전 공부, 28, 56, 69
- 기도,, 48, 61
- 난민, 10, 36
- 물문경, 41, 52, 68, 76
- 봉사, 10, 58, 61, 64, 80
- 사도, 71
- 사랑, 44

- 선교 사업, 36, 41, 50, 61, 66
- 선지자, 22, 71, 76
- 성신, 4
- 성전, 10, 36, 48
- 성찬, 4
- 성탄절, 10, 40, 41, 42, 43, 58, 62, 64, 66, 69, 70, 75
- 소망, 36, 44
- 시련, 4, 40, 43, 61
- 신앙, 14, 28, 36, 44, 48, 50, 52
- 예수 그리스도, 14, 22, 42, 44, 58, 62, 69, 70, 80

- 우선순위, 8, 50
- 은혜, 14
- 의로움, 7
- 이혼, 64
- 인내, 48, 63
- 자녀, 42, 64, 66, 75
- 재림, 10
- 주일학교, 8, 28
- 평화, 4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이 생에서의 평안

구 주께서는 이 필멸의 세상에 온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니라.]”(요한복음 16:33) 그러나 그분은 필멸의 성역을 베푸시는 동안 제자들에게 이런 아름다운 약속도 주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요한복음 14:27) 이 개인적인 평안의 약속이 오늘날 그분의 제자들에게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은 위안이 됩니다.

우리 중 어떤 이들은 아름답고 평화로운 환경에서 생활하지만 내적으로는 큰 동요를 겪으며 생활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개인적으로 크나큰 상실과 비극과 지속되는 시련 가운데 있으면서도 평안을 느끼고 완전한 평온함 속에서 생활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누군가의 얼굴에서 그런 평안의 기적을 보셨거나 이야기를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일을 자주 목격했습니다. 때로는 죽음을 목전에 둔 하나님의 충실한 종이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병실에서 그런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한 자매님이 암으로 사망하기 며칠 전, 그분을 보러 병원을 방문했던 일이 기억납니다. 사랑이 많으신 이 자매님께서서는 한때 제 두 딸의 초등학교 교사이셨기에, 저는 두 딸을 데리고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자매님이 누워 계신 침대 주변에는 자매님이 이 세상에서 보내는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고자 그분의 가족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희를 보신 자매님이 침대에서 일어나 앉으셔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매님은 제 딸들에게 손을 내미시며 제 딸들을 한명씩 자신의 가족 모두에게 소개하셨습니다.

자매님은 제 딸들이 마치 왕후의 궁정에 들어선 왕족인 것처럼 대하셨습니다. 자매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병실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이 구주의 제자라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자매님의 목소리에 담겨 있던 힘과 다정함과 사랑을 기억합니다. 또한 죽음을 목전에 두고 계시던 자매님이 것처럼 밝은 미소를 지으시는 것을 보고 놀랐던 것이 기억납니다.

자매님이 위안의 신권 축복을 받기는 하셨지만, 자매님은 주님께서 주신 평안의 약속이 참됨을 우리 모두에게 산 증인으로서 보여 주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요한복음 16:33)

자매님은 그분의 다음과 같은 권유를 받아들였습니다. 어떤 시련과 고난이 닥칠지라도,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이 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마태복음 11:28~29)

구주를 따름으로써만 우리는 모두 시련 속에서도 평안과 평온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성찬 기도문은 우리가 시련으로 가득찬 이 세상 한가운데서도 그 평안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를 이해하게 도와줍니다.

성찬을 취할 때, 우리는 그분을 따르겠다는 성약에 충실하겠다고 다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구주를 기억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그분께로 향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분을 기억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저는 제가



겻세마네 동산에서 그분 발치에 무릎을 꿇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나사로에게 무덤 밖으로 나오라고 명하시는 주님 곁에 있다고 상상함으로써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저는 그분이 가까이 계심을 느끼게 되고 감사함을 느끼게 되며,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여러분은 또한 그분의 계명을 지키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받들고 그분의 증인이 되겠다고도 약속합니다. 여러분이 그분과 맺은 성약을 지킬 때, 성신이 여러분과 함께할 것이라고 그분은 약속하셨습니다. (교리와 성약 20:77, 79 참조)

성신이 함께할 때 적어도 두 가지 면에서 평안을 얻습니다. 성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우리를 죄로부터 정결하게 해 줍니다. 또한 성신은 하나님의 승인과 영생에 대한 소망에서 오는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사도 바울은 이 훌륭한 축복에 대해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이라.]”(갈라디아서 5:22)

하늘에서 온 사자는 구주의 탄생을 알리며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 평화로다.”(누가복음 2:14, 강조체 추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간증합니다. 우리와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그 어떤 시련이 올지라도, 아버지와 그의 사랑하는 아들은 영을 보내시어 우리가 이생에서 평안을 찾게 하십니다. ■

이 말씀으로 가르치기

아 이어링 회장은 우리가 시련 중에 평안을 찾는 방법을 이해하는 데 성찬 기도문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가르쳤다. 그것은 우리가 계명을 지킬 때 성신이 우리와 함께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 준다. 여러분의 반원들에게, 성신이 함께하는 것이 평안을 얻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질문해 본다. 시련 중에 평안을 느끼도록 성신이 어떻게 도움을 주었는지에 대해 여러분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을 나눌 수 있다. 여러분의 반원들에게 이 메시지를 이번 주 성찬식 시간 동안 숙고해 보라고 권유해 본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번 주 동안 구주를 기억할 것인가?

아 이어링 회장은 “마음을 [구주]께로 향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분을 기억하겠다고 선택[할 것을]” 권고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한 주 동안 “항상 그를 기억”할 수 있는가?(교리와 성약 20:77, 79 참조)

구주에 대한 가장 좋아하는 성구가 있는가? 이번 주에 매일 새로운 성구를 찾아 표시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다.

우울하거나 기분이 좋지 않을 때 마음속으로 부르는 찬송가나 다른 영적인 노래가 있는가? 이번 주에 구주에 대한 특정한 노래 하나를 정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매주 성찬식 시간에 구주의 삶과 속죄 희생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가? 항상 구주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한 주 동안 여러분이 내리는 선택을 되돌아보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는 회개함으로써 성찬식을 준비할 수 있다.

매일 복음을 나눌 기회가 생길 수 있도록 기도하는가? 이번



주에 구주에 초점을 맞춘 복음 토론을 해 보도록 노력한다. 가정의 밤에서 구주에 대해 간증할 수 있고, 여러분이 교회에서 했던 경험에 대해 학교 친구에게 이야기해 줄 수도 있다.

이번 주에 특별한 방법으로 구주를 기억하겠다는 목표를 세운다. 부모, 친척, 지도자, 또는 친구에게 여러분의 목표에 대해 이야기한다. 주말이 되면 그 목표를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말해 준다. 여러분과 그들 모두 아이어링 회장이 말한 평안과 행복을 느끼게 될 것이다. ■

어린이

그리스도께 나아오라

구 주께서는 우리가 그분께 나아오면 평안을 얻게 된다고 약속하셨어요.(마태복음 11:28 참조) 그분께 나아온다는 것은 그분의 모범을 따르고 그분과 같이 합당한 생활을 하도록 노력한다는 뜻이에요. 이 그림을 자르고 오려서 잘 보이는 곳에 붙이거나 걸어 놓으세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 나아오는 다른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성찬식 시간에 경건히 앉아 있다.
- 항상 친절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
- 경전에서 구주에 대한 성구를 읽는다.

- _____
- _____
- _____
- _____



이 자료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부하고 어떤 부분을 나눌지 알기 위해 간구한다.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을 이해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키우고 방문 교육을 통해 돌보는 자매들을 축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더 자세한 내용은 reliefsociety.lds.org에서 알아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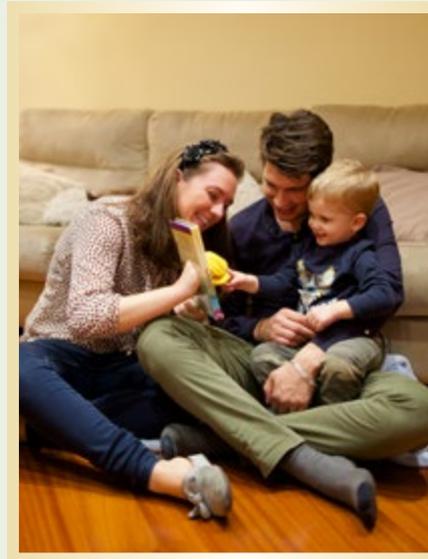


신앙, 가족, 구제

그리스도에 중심을 둔 가정

경전에는 그리스도에 중심을 둔 모범적인 가정들이 등장한다. 니파이는 부친인 리하이가 사망한 후, 하나님의 경고와 계시를 믿고 자신의 말에 귀 기울인 가족과 사람들을 이끌고 레이먼인들의 땅을 떠났다. 니파이인들은 이 새로운 땅에 도착한 뒤 모든 면에서 모세의 율법을 좇으며 주님의 법도와 규례와 계명을 지켰다.(니파이후서 5:6~10 참조) 그러나 그런 니파이인들 중에서도, 결국 불순종을 선택한 이들이 있었다.

스코트 장로는 우리 가족이 니파이인들처럼 의롭지 못한 편에서는 때가 오더라도 가정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한 “우리 가정이 평안의 장소이자 피난처가 된다는 확신을 얻[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스코트 장로는 “여전히 고난과 마음속 고통이 많겠지만, 우리는 혼란 중에서도 내면의 평안과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⁵



의로움 속에 깃든 가족의 기쁨

하 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주고, 사랑스러운 분위기에서 올바른 원리를 배우도록 우리를 도우며 영생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해 가족을 제정하셨다.”¹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인 러셀 엠 넬슨 회장은 “위대한 행복의 계획”(앨마서 42:8)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분의 계획은 남자와 여자가 ‘기쁨을 갖기 위해’(니파이후서 2:25) 존재한다고 선언합니다. 그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조화를 이루며 살겠다고 선택할 때 오게 됩니다.”²

가정은 그리스도에게 중심을 둘 때 성공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리처드 지 스코트(1928~2015) 장로는 그런 가정은 “복음을 가르치고 성약을 지키며 사랑이 넘치며... 순종하는 삶”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굳건히 뿌리내리게” 된다고 설명했다.³

제일회장단 제1보좌인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하늘의 권능을 [우리의

가정으로 끌어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하겠다고 결심할 수 있습니다.” 그는 또한, 가정에서 사랑, 봉사, 순종, 행복을 키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신앙으로 실천해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자녀들의 본성은 그들이 찾는 행복을 스스로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거듭날 것입니다.”⁴라고 말했다.

보충 성구

요한3서 1:4; 니파이전서 8:12;

니파이후서 5:27

생각해 볼 점

가정에서 더 의롭게 생활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주

1. 지침서 제2권: 교회 관리(2010), 1.1.4.
2. 러셀 엠 넬슨, “해의 왕국의 결혼”, *리아호나*, 2008년 11월호, 92쪽.
3. 리처드 지 스코트, “가정의 평화를 위해”, *리아호나*, 2013년 5월호, 30, 31쪽.
4. Henry B. Eyring, “The Teachings of ‘The Family: A Proclamation to the World,’” *New Era*, Sept. 2015, 5, 6.
5. 리처드 지 스코트, “가정의 평화를 위해”, 31쪽.



데본 지 듀란트

본부 주일학교
회장단 제1보좌

하나님을 만날 준비

주일학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은 주일학교를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물 문경에서 앰울레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강력한 가르침을 전합니다.(엘마서 34장 참조) 그 장에 나오는 아름다운 성구들 중에 앰울레크가 이야기한 다음 말씀이 제 눈에 들어옵니다. “이는 보라, 이 생은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할 시간이라.”(엘마서 34:32)

이 삶의 목적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는” 것임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렇게 자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다시 만날 준비를 하기 위해 나는 매일, 매주, 매달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내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보내기로 결심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주일의 기준으로 본다면, 일주일 중 가장 중요한 시간은 우리가 성찬을 취하는 시간이라는 데 모두 동의할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맺은 성약을 새롭게 하고, 그분의 사랑을 숙고해 보며,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결과로서 우리가 얻게 된 소망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는 그 특별한 시간 말입니다.

저는 또한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시간을 통해 유익을 얻으려면, 우리가 주일학교를 어떻게 여기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일학교의 목적은 “가르치고, 배우고, 우정 증진을 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개인과 가족의 신앙을 강화하는 것”입니다.¹ 개종을 이루는데 필수적인 이러한 요소들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기 위해 노력할 때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교사 부름을 받은 분들이 구주께서 보여 주신 방법으로 가르침 교재와 교사 평의회 모임을 통해 더 나은 교사가 되고자 노력하고 계시다는 사실에 우리는 흥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하지만 교사와 교수법의 향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구주께서 보여 주신 방법으로 배우려는 반원의 노력 또한 짝을 이뤄야 합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연구와 또한 신앙으로”(교리와 성약 109:7)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은 행위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알기 원한다면 행해야 합니다.(요한복음 7:17 참조)

주일학교가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장소가 되려면, 반원들이 공과를 들을 준비를 하면서 스스로 배우고 성구를 삶에 적용해 보며, 그러면서 한 주 동안 했던 경험과 느꼈던 영감을 주일학교에서 편하게 나눌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왕국의 교리를 서로 가르칠 때,] … 모두가 모두에게서 교화[될 것입니다.]”(교리와 성약 88:77, 122)

안식일이 즐거운 날이 되게 하십시오

최근에 제일회장단은 우리 각자에게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 [되게 하라]”고 권유했습니다.(이사야 58:13) 일요일 세 시간 동안의 정규 모임에서 하는 경험들은 우리가 그 목표를 성취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왜 때로 우리는 주일학교에서 제공하는 기회를 온전히 누리려고 하지 않는 것일까요?

최근에 저는 주일학교 시간 동안 하는 많은 “다른” 일들을 관찰했습니다. 거기에는 교회 로비나 복도에서 대화를 나누는 일, 와드 지도자들의 접견, 스테이크 지도자들이 담당 와드 지도자를 훈련하는 일, 청소년 지도자들이 계획한 일들에 대해 협의하는 일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주어진 시간에 비해 할 일이 많기에, 저는 지도자들이 왜 주일학교 시간에 다른 일들을 하곤 하는지를 잘 이해합니다. 그러나 워드 지도자들이 주일학교 시간을 비워 두고 그 시간에 그들이 돌보는 회원들과 함께 복음 토론에 참여하게 될 때, 그 시간은 모든 사람들에게 큰 축복이 됩니다.

우리가 “주일학교를 가버이 여기는” 또 다른 예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우리 중 많은 이들이 때때로 주일학교에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만큼 뭔가를 얻지 못한다고 느껴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주일학교에서 제가 무엇을 얻느냐는 교사의 준비뿐만 아니라 제 자신의 준비와 참여에도 달려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본부 주일학교 회장이신 태드 알 콜리스터 형제님은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우리가] 경전을

공부하고, 조금이라도 수업을 준비해 오며, 공과 시간에 토론에 참여하고, 질문을 하고, 성스러운 느낌들을 기록할 때마다, 우리는 점점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될 것이며, 그분이 느끼시는 기쁨을 경험하는 능력도 자랄 것입니다.”²

주일학교 시간을 위해 미리 준비하고, 그 시간을 온전히 주일학교를 위해 사용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주일학교 시간을 위해 미리 준비하고 그 시간을 온전히 주일학교를 위해 사용하시기를 권유합니다. 모든 워드 및 지부의 회원과 지도자들은 매주 이 중요한 시간 동안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훌륭한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

주

1. 지침서 제2권: 교회 관리 (2010), 12.1
2. 태드 알 콜리스터, “배움의 기쁨”, 리야호나, 2016년 10월호, 14쪽.



구 주께서 보여 주신 방법으로 가르침과 교사 평의회 모임에 대해서는 teaching.lds.org/korean에서 더 볼 수 있습니다.



제럴드 코세 감독
감리 감독

주님을 맞이할 장소를 예비합시다

구주께서 탄생하시고 지상에서
성역을 베푸신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주님이 돌아오실
그날을 대비해 그분을 맞이할
곳을 준비할 개인적인 책임이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게 됩니다.

지 난해 크리스마스가 다가올 무렵, 저는 교회 회원이 아닌 한 프랑스 고위 관리를 위해 마련된 만찬에 참석한 일이 있었습니다. 만찬이 열린 곳은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조셉 스미스 기념관이었습니다.

저희는 만찬장에 들어가기 전에 아름다운 템플 스퀘어가 보이는 10층 전망대로 손님을 안내했습니다. 무수히 반짝이는 조명 속에 서 있는 솔트레이크 성전은 말할 수 없이 아름다웠습니다. 저희는 거의 할 말을 잊은 채 몇 분 동안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연회장으로 돌아오는 길에 프랑스 관리는 뜻밖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세상의 종말을 믿으십니까?” 대화는 주님의 재림과, 그분이 돌아오시는 날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가 모두 준비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영감 어린 토론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조금 전 황홀하게 바라보던 성전을 생각하자 놀라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 드디어 아름다운 장소에 거하게 되실 것입니다!”

경전 안내서에는 성전은 “문자 그대로 주의 집”이라는 설명이 있습니다.¹ 다시 말해, 성전은 단지 상징적인 장소만은 아닙니다. 이 경륜의 시대에 세워진 성전들은 주님이 직접 오실 집으로서 준비되고 헌납되었습니다. 주님은 “내가 나의 성전에 올 그 날에 나의 성약의 백성이 하나로 집합되[도록]”(교리와 성약 42:36; 강조체 추가) 당신의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주께서 필멸의 삶을 초라하게 시작하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극명한 대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요, 만군의 주이신 그분은 보잘것없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시어 구유에 눕혀지셨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었습니다.”(누가복음 2:7) 어린 시절 예수님의 가족은 잔인한 폭군을 피해 이집트로 피신하는 등, 한 집에서 안락하게 거하는 생활을 누리지 못하셨습니다.(마태복음 2:13~14 참조)

주님께서 가족들과 이집트에 머물며 겪으신 일을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짐작하건대 난민으로 살아가는 일이 절대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내전의 현장을 피해 온 이주자들의 삶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성인이 되어서도 정해진 거처가 없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주님께 다가와 “[주여,]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구주께서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누가복음 9:57~58)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주께서 탄생하시고 지상에서 성역을 베푸신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주님이 돌아오시는 그날을 대비해 그분을 맞이할 곳을 준비할 개인적인 책임이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성전에 가십시오

먼저, 주님의 집인 성전에서 그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구주께서 태어나 생활하시고 지상에서의 성역을 베푸셨던 성지에 가 보기를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껏 많은 사람이 상당한 희생을 하며 성지에 다녀왔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장차 돌아오실 장소를 방문하는 일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그분의 재림을 준비할 가장 좋은 방법 한 가지는 주님의 거룩한 집에 자주 방문하여 성스러운 성약을 통해 주님과와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준비시키십시오

둘째, 우리는 우리 가정을 주님께서 머무르고 싶어 하실 장소로 가꿀 수 있습니다. 경전에는 자신의 집으로 구주를 모셔 그분을 대접한 친절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방문해 봅시다. 우리 집은 주님께서 머무르시겠다고 말씀하실 만한 곳일까? 우리 집은 주님께서 편안하게 느끼실 만큼 안전하고 평화로우며 영이 가득한 곳일까? 집이 넓고 호화스러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추하더라도 복음이 중심이 되고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로 가득한 집이라면 주님께서 기쁘게 여기실 것입니다.

택함받은 이들을 모으십시오

셋째, 우리는 주님께서 온 세상에서 택하신 이들을 모으는 일에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지상에 주님의 왕국이 세워지도록

한동안 집을 떠나 있게 되더라도 말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역사는 곧, 언제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갈 수 있게 준비되어 있고 기꺼이 그곳으로 간 성도들의 역사입니다. 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리하이 등 많은 고대의 선지자들을 떠올려 봅니다. 절정의 시기에 곳곳하게 지중해 전역에 복음을 전했던 주님의 사도들도 떠올려 봅니다.

어제도 오늘도, 후기의 선지자와 사도들은 수천 명의 선교사와 더불어 온 세계에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포도원에서 봉사하기 위해 기꺼이 안락한 집을 떠납니다.

궁핍한 사람을 도우십시오

마지막으로, 집 없는 이웃을 돕는 것은 주님을 맞이할 장소를 준비하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회복 초기에 성도들은 피난처조차 없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시온을 찾아 나선 그들은 편협하고 악랄한 원수들 탓에 집을 등질 수밖에 없을 때가 많았습니다.

브리검 영(1801~1877) 회장은 성도들이 처한 곤경을 다음과 같은 가슴 아픈 말로 서술했습니다. “우리는 평화로운 집에서 끝도 없이 내몰렸다. 여자들과 아이들은 한겨울에 평원과 숲속, 길, 천막에서 온갖 시련을 겪어야 했고, 죽음을 맞기도 했다.”²

1839년 겨울, 일리노이 주 퀸시의 작은 마을에서 이 시기 중 가장 감동적인 사건 하나가 일어났습니다. 미시시피 강둑에 위치한 이 마을에는 당시 정착민과 농부들이 살고 있었으며 그중에서 약 천오백 명의 사람들은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혹독하던 겨울, 이들은 난데없는 미주리 주지사의 근절령을 피해 도망쳐 온 오천 명가량의 교회 회원을 맞이하게 됩니다. 얼어붙은 미시시피 강을 걸어서 건너온 성도들은 극도로 궁핍하고 고통스러운 상태였습니다. 퀸시의 주민들은 두 팔 벌려 그들을 환영하며 자신들의 집을 내어 주고 얼마 안 되는 식량을 나누는 놀라운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퀸시의 한 주민은 이 난민들의 도착을 다음과 같이 기술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거처를 찾을 때까지 폭풍우를 피해 내 집에 머물게 되어 기뻐다. 여러 날 동안 밤이면 위층과 아래층에 삐곡히 깔아 놓은 침대를 때문에 침대를 밟지 않고는 한 발짝도 땔 수 없었다.”³



침상에 뉘어 놓고서
나도 누우니
에덴동산에서 꿈꾸는 듯하였네 ...
그때에 내가 보니
그는 나그네가 아니라
손에 못자국 난 구주
내 눈앞에 서 계셨네
내 초라한 이름 부르며
내게 말씀하시길
“두려워 말라 내가 한 모든 것
내게 한 것이라”

더 차별하고 풍요로운 환경에서 사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에게 이러한 이야기들은 매우 중요한 점을 시사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집 없는 이들과 궁핍한 이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우리가 난민들이 대거 이주해 오는 지역에 살든, 작고 고립된 지역에 살든, 최소한의 생필품을 마련하는 것조차 힘겨운 사람들을 위해 봉사할 방법은 많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인도주의 기금에 힘을 보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지역에서 궁핍한 자들을 위해 사랑으로 봉사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일할 수 있습니다. 보금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들어오면 그들에게 우정의 손길을 뻗을 수 있습니다. 우리 와드나 지부를 방문하는 나그네를 진심으로 환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중 가장 아름다운 찬송가 한 곡에는 큰 사랑을 베푼 사람 덕분에 안식처를 얻은 한 나그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한밤중 큰비 나고
차가운 겨울 바람 불 때에
나그네 음성 듣고
내 집에 들어오게 했네
따뜻이 몸을 녹이며

저는 세상의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서 도움의 손길을 절대 거두지 않는 교회에 속한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하루하루 교회와 교회 회원들이 베푸는 셀 수 없이 많은 크고 작은 사랑과 자선 행위를 보며 저는 마음이 겸손해집니다. 이러한 행위는 언제나 교회의 사명 중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며 우리는 그분의 모범을 따르려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자 구속주이십니다. 저는 그분이 절정의 시기에 태어나셨으며, 지금도 살아 계시고, 언젠가 지상의 왕국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기 위해 영광 중에 돌아오시리라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그때를 위해 주님의 거룩한 집을 더 자주 방문하고, 가정을 안전하고 사랑이 가득하며 평화로운 곳으로 가꾸며, 온 사방에서 그분이 택하신 자들을 모으는 일에 참여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있는 집 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겠다는 특별한 열망을 느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마음과 가정에 구주를 맞이할 자리가 마련될 것이며, 그분이 돌아오시는 날은 참으로 크고 놀라운 날이 될 것입니다. ■

주

1. 경전 안내서, “성전”; 강조체 추가.
2. Brigham Young, in B. H. Roberts, *A Comprehensive History of the Church*, 2:509.
3. Wandle Mace, in Ora H. Barlow, *The Israel Barlow Story and Mormon Mores* (1968), 156; 또한 154-55 참조.
4. “슬픔에 잠긴 나그네”, 찬송가, 30장.





제임스 제이
해물러 장로
칠십인 정원회

은혜의 신성한 힘

은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더 온전히 계명을 지키고 더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예 수 그리스도께서 지니신 모든 속성을 통틀어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은 “은혜[가] ... 충만하[시다]”(요한복음 1:14)라는 점일 것입니다. 경전에서 은혜라는 말은 축복하거나, 은사를 내리거나, 사람에게 유익한 일을 베푸는 신성한 성품과 권능을 일컬을 때 가장 자주 사용됩니다. LDS Bible Dictionary[후기 성도 성경 사전]은 이 은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은혜]라는 말에서 중요한 개념은 그것이 도움이나 힘을 주기 위한 신성한 수단이라는 것이다. ... 은혜는 가능하게 하는 힘이다.” 은혜를 입음으로써 우리는 제힘만으로는 할 수 없던 일도 해낼 수 있고 될 수 없던 사람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그러한 가능하게 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그분처럼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과 육신이 지닌 능력의 한계

그리스도와 같이 온전하고 충만해지라는 권고를 받고 있지만(에베소서 4:13 참조), 그것은 우리 혼자 힘으로는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모두 영원한 영과 필멸의 육신, 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아브라함서 3:18 참조) 영원한 우리의 영은 우리가 전세에서 내린 선택들의 결과로 지상에 오게 됩니다. 전세에서 내린 이러한 선택들은 우리의 인격과 성품, 그리고 영적인 예지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모든 영은 다 다릅니다.(아브라함서 3:19 참조) 각각의 영은 전세에서 어떤 선택을 했는가에 따라 다른 정도의 예지, 즉 빛과 진리(교리와 성약 93:36 참조)를 갖게 됩니다. 모든 영은 깨끗하고 순결하며 고귀하고 위대하기까지 한 상태로 지상에 내려와 필멸의 육신을 입지만, 아직까지는 어떤 영도 그리스도와 같은 충만함에 이른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은 필멸의 삶이라는 교육 기간을 거친 후, 영의 세계에서 추가적인 경험을 통해 완전함을 추구하게 되겠지만, 영은

베드로가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신앙을 행사했을 때, 그는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할 권능을 얻었습니다. 바로, 물 위를 걷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시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부활하고 나서야 최종적으로 완전함에 이르게 됩니다.

현재 우리가 지닌 불완전한 영에 더하여 우리가 지닌 필멸의 육신 또한 불완전합니다. 우리의 필멸의 육신은 경이롭기도 하지만, 쇠하고 약해져 사망할 것이며, 그전에는 알지 못했던 욕망과 식욕과 걱정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육신이 영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영이 육신의 요구에 굴복하곤 합니다. 지상에 왔던 위대한 영 중에도 육신을 억누르느라 몸부림친 이들이 있었습니다. 니파이는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나의 마음은 나의 육신으로 인하여 슬퍼하며, … 나는 나를 것처럼 쉽게 괴롭히는 유혹과 죄로 인하여 에워싸였도다.”(니파이후서 4:17, 18; 또한 27절 참조)

영과 육신 사이에 벌어지는 전쟁은 필멸의 상태에서 오는 또 다른 이유로 더욱 힘겨워집니다. 우리의 육체는 “타락한” 세상의 물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런 이유로 사탄은 특별히 우리를 “사로잡[을] … 능력”(니파이후서 2:29)을 얻게 되었습니다. 브리검 영(1801~1877) 회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육신을 입은 채 죄의 유혹에서 자유로우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육신을 입고도 그들의 영과 육을 모두 성결하게 하여 매우 순수한 상태에 이룸으로써 진리를 위협하는 대적의 권능의 영향력을 다시는 느끼게 되지 않을 것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그 정도로 완벽해질 수 있다면, 그는 죽지도 않고 죄가 만연한 세상에서 머무를 수도 없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 저는 우리가 살아 있는 한 어느 정도는 죄의 영향을 느끼게 마련이며, 마침내는 사망이라는 시련을 거쳐야만 하리라고 생각합니다.”¹

은혜의 신성한 힘

우리는 현재 우리의 영혼이 지닌 온갖 나약함과 결핍을 하나님께서 지니신 힘과 덕, 능력으로 거듭나게 할 신성한 힘이 필요합니다. 감사하게도, 그런 신성한 힘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은사가 우리에게 “더하여[질]”(아브라함서 3:26) 때, 우리도 언젠가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께서도 바로 이런 방법으로 충만함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은 조셉 스미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온 것은 빛이니, 빛을 받아들이고 계속하여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빛을 더욱 받아들이나니, 그 빛은 점점 더 밝아져 마침내는 대낮이 되리라.”(교리와 성약 50:24)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운 축복을 가볍게 여기거나, 체쳐 두거나, 심지어 무시한다면, 주님은 “더 큰 것들을 [우리에게] 나타내지 아니하[실] 것입니다.”(제3니파이 26:10)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요,!”(고린도후서 6:1) 결국 “은혜에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교리와 성약 20:32)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현재의 나약함과 불완전함 속에서 자신과 타인에게 인내하는 법을 배워야 하며, 완전함을 향해 나아갈 때 느릿할 수밖에 없는 성장 과정 속에서도 끈기 있게 버티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은혜가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이해하면, 우리가 충분한 은혜를 얻는 데 몇 가지 원리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은혜를 얻기 위한 첫 번째 원리입니다.(로마서 5:1~2 참조) 진리와 소망과 행위와 확실한 간증은 신앙의 필수 요소이며 주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입니다.

가령, 물 위를 걸어 주님께 다가갔던 베드로의 경험을 생각해 보십시오. 때때로 우리가 그렇듯, 베드로와 제자들은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물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신 예수께서는 당신께 가까이 오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습니다. 희망에 찬 베드로는 배에서 난폭한 바다로 내려와 주님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이 결단력 있는 행위와 만나자 베드로는 물 위를 걷는 권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을 에워싼 폭풍을 바라보며, 마음에 의심이 일었고 곧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외쳤습니다.

경전에는 그 반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더라.]”(마태복음 14:30~31) 베드로가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신앙을 행사했을 때, 그는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할 권능을 얻었습니다. 바로, 물 위를 걷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주님께에서 눈을 돌리고 의심하게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을 도와주었던 권능에서 멀어져, 자신의 힘에만 의지해야 했고, 곧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구원해 달라는 베드로의 외침에 주님께서 어떻게 응하셨는지를

주목해 보십시오. 주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구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시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회개

충만한 은혜를 얻는 두 번째 원리는 회개입니다. 물몬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회개하여 주 그들의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구원을 얻을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 사람들로 회개와 선한 행위에 이르게 하시고, 그리하여 그들이 회복되어 자기의 행위대로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에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힐라맨서 12:23~24) 이 성구에서, 회개하는 마음과 선한 행위는 은혜와 조화를 이룬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은혜를 얻기 위한 첫 번째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며, 두 번째 원리는 회개입니다.

엘마 이세가 어떠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엘마 이세와 모사이야의 아들들은 “죄인 중에 가장 비천한 자들”(모사이야서 28:4)이었습니다. 엘마 이세는 주님의 천사가 나타났을 당시, 그때까지 자신이 살면서 지은 온갖 죄와 악한 행위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엘마 이세는 “영원한 괴로움으로 고통을 당[했습니다.]”(엘마서 36:12) 엘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하나님의 면전에 나아간다는 생각만으로도 내 영혼은 표현할 수 없는 공포로 괴로움을 당하였느니라.”(엘마서 36:14) 그러나 엘마는 자신의 부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죄를 속죄하러 오실 것에 관해 언급한 것을 기억했습니다. 이를 떠올린 엘마는 마음속으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 나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엘마서 36:18)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엘마는 “더 이상 [자신의] 고통을 기억할 수 없었[고] ... 죄의 기억으로 괴로움을 당하지 아니하였[습니다.]”(엘마서 36:19)

엘마는 영혼에 고통을 느끼며 회개한 끝에 정결하게 되어 새로운 존재로 거듭날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시는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는 남은 생애 동안 다른 사람이 회개하고 성신을 받도록 도우며 교회를 일으키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죄인 중에 가장 비천한 자였던 엘마 이세가 개종하여 하나님의 선지자가 된 이야기는 주님의 은혜에 깃든 권능이 우리 모두를 의롭고 성결하게 한다는 사실을 인상적으로 보여 줍니다.

겸손

세 번째 원리는 겸손입니다. 주님은 모로나이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 앞에 스스로 겸손하여진 모든 자에게는 족하니, 이는 만일 그들이 내 앞에 스스로 겸손하여 나를 믿는 신앙을 가지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연약한 것들을 강하게 되게 할 것임이니라.”(이더서 12:27) 연약한 것들이 강하게 되는 것은 은혜의 산물입니다.

그 과정에 겸손도 필요하다면, 겸손이 무엇인지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요컨대, 겸손은 사람이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이루어진 결과에 대해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가장 큰 모범이십니다. 예수님의 겸손하고 순종적인 모습은 그분이 속죄 희생을 치르실 때 완벽하게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마태복음 26:39)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께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근면

네 번째 원리는 근면입니다. 니파이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후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은혜에 의한 것[이 아니라.]”(니파이후서 25:23) 개중에는 이성구를 하나님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은혜를 베풀지 않으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제 생각은 다릅니다. 사람이 아무 행위도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예는 무수히 많습니다. 예컨대, 부활의 권능은 개개인의 노력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로써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제 생각에 니파이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라고 한 것은 우리가 부지런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을 뜻한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전 칠십인 정원회의 일원이었던 브루스 시 하펜 장로님은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구주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 ‘후’에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노력을 기울이기 전이나 노력하는 도중에, 그리고 그 후에도 주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²

야렛의 형제 이야기를 생각해 봅시다. 야렛의 형제는 배를 지어 그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라는 명을 받고 차근차근 부지런히 주님의 명을 따랐습니다. 배가 마무리될 무렵, 배 안의 어둠을 염려한 야렛의 형제는 주님께 빛을 주십사 간구했습니다. 주님은 손쉽게 해결책을 주실 수도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는 대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배 안에 빛을 갖도록 내가 어떻게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이더서 2:23) 그러자 야렛의 형제는 부지런히 열여섯 개의 돌을 준비하여 주님께 보여 드리며, “그것들이 암흑 중에 빛을 발하도록” 만져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드립니다.(이더서 3:1~4 참조)

야렛의 형제는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모두 마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돌 하나하나를 손으로 만지시 돌들이 고대하던 향해에 필요한 빛을 발하도록 야렛의 형제를 위해 그분의 권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가 부지런히 최선을 다한다면 언제라도 기꺼이 우리에게 신성한 권능을 베푸시리라는 것을 보여 주셨습니다.

순종

다섯 번째 원리는 순종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면, … 너희는 은혜로 은혜를 받게 되리라.”(교리와 성약 93:20) 모로나이는 이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모든 경건하지 아니한 것을 거부하고, 너희의 능력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것 같으면, 그러면 그의 은혜가 너희에게 족하니, 그의 은혜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될지라.”(모로나이서 10:32)

우리는 계명을 지키라는 주님의 명이나 경건하지 아니한 것을 거부하라는 모로나이의 명을 철저히 지키면서도, 은혜는 명받은 것을 완벽하게 지킬 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이해해야 합니다. 계명을 완벽하게 지키거나 경건하지 아니한 것을 한 치도 어긋남 없이 거부할 때만 은혜를 얻을 수 있다면, 필멸의 세계에서는 끝없이 불완전하기만 한 존재인 우리는 결코 은혜를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가 마련된 까닭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더 온전히 계명을 지키고 더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라는 주님의 명과 경건하지 아니한 것을 거부하라는 모로나이의 명은 최선을 다해 이를 지키라는 뜻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행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의도입니다.

성신을 받고 영의 은사를 구함

마지막 원리는 성신을 받고 영의 은사를 구하는 것입니다.(모사이야서 18:16 참조) 진정 우리는 성신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해집니다. 성결하게 하고 가능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을 주는 분이 성신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관하여 십이사도 정원회의 팔리 피 프랫(1805~1857) 장로는 다음과 같이 가르쳤습니다. “성신의 은사는 … 모든 지적 능력을 더욱 활발하게 하고, 모든 자연스러운 감정과 애착을 증대하고 확대하고 확장하고 정결하게 하며, 지혜의 은사로써 그것들을 조절하여 합당하게 쓰이게 한다. 성신의 은사는 연민, 기쁨, 소망, 타인을 향한 감정, 애착 등 우리가 타고난 온갖 훌륭한 덕성에 영감을 선사하고, 그것들을 계발하고 함양하며 성숙하게 한다. 성신의 은사는 유덕하고 친절하고 선량하고 부드러우며 온화하고 자애로운 마음을 불어넣어 준다. 성신의 은사는 인격과 용모, 성품을 아름답게 하고 건강과 활력, 생기, 그리고 친밀한 감정을 일으키기도 한다. 성신의 은사는 사람의 신체적, 지적 능력을 모두 북돋워 주며 정신을 강하고 담대하게 한다. 즉, 성신의 은사는 뼈에 골수를, 마음에 기쁨을, 눈에 빛을, 귀에 음악을, 그리고 온몸에 생명을 불어넣는다.”³

우리는 침례와 확인을 받은 후 성신을 받을 때 이러한 축복을 얻습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올슨 프랫(1811~1881) 장로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성신은 사람과 함께할 때마다 사람이 성신의 영향력에 순종하는 만큼 그를 깨끗하고 성결하고 정결하게 할 뿐 아니라, 그 사람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은사를 부여하기도 한다. … 교회 회원들은 각자의 충실함, 환경, 타고난 능력, 의무, 부름에 따라 이러한 은사를 받게 된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합당하게 가르침을 받고 확인받고 온전하게 되고 구원받도록 인도되는 것이다.”⁴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로 충만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 풍성한 은혜를 받으셨고, 이는 “은혜로 은혜를”(교리와 성약 93:12) 받으신 결과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은혜로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모두 물려받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신앙, 회개, 겸손, 근면, 순종, 영과 영의 은사를 구하는 원리를 통해 가능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는 은혜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크나큰 은혜로 우리를 사망과 죄에서 일으키시고 영생을 부여하십니다. 또한, 우리를 변화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며, 온전하게 하십니다. 크나큰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딸로서 지닌 신성한 잠재력을 온전히 실현할 수 있습니다. ■

2014년 6월 3일 브리검 영 대학교 하와이 캠퍼스에서 열린 교회 교육 기구 영적 모임에서 전한 말씀, “His Grace Is Sufficient for You[그의 은혜가 너희에게 족하니]”에서 발췌함. 전문은 devotional.byuh.edu에서 볼 수 있다.

주님은 크나큰 은혜로
우리를 사망과 죄에서 일으키시고
영생을 부여하십니다. 또한, 우리를
변화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며,
온전하게 하십니다.

주

1. Brigham Young, *Deseret News*, June 3, 1863.
2. Bruce C. Hafen, *The Broken Heart: Applying the Atonement to Life's Experiences*(1989), 155~56.
3. Parley P. Pratt, *Key to the Science of Theology: A Voice of Warning* (1978), 61.
4. Orson Pratt, *Masterful Discourses and Writings of Orson Pratt, comp. N. Lundwall*(1962), 570, 571.



Jorge Coello Santángelo 15

호르헤 올란도 코코 산탄젤로,
부르심(마태복음 4:19~20 참조),
아르헨티나, Purchase Award 수상자

제10회
국제 미술품 공모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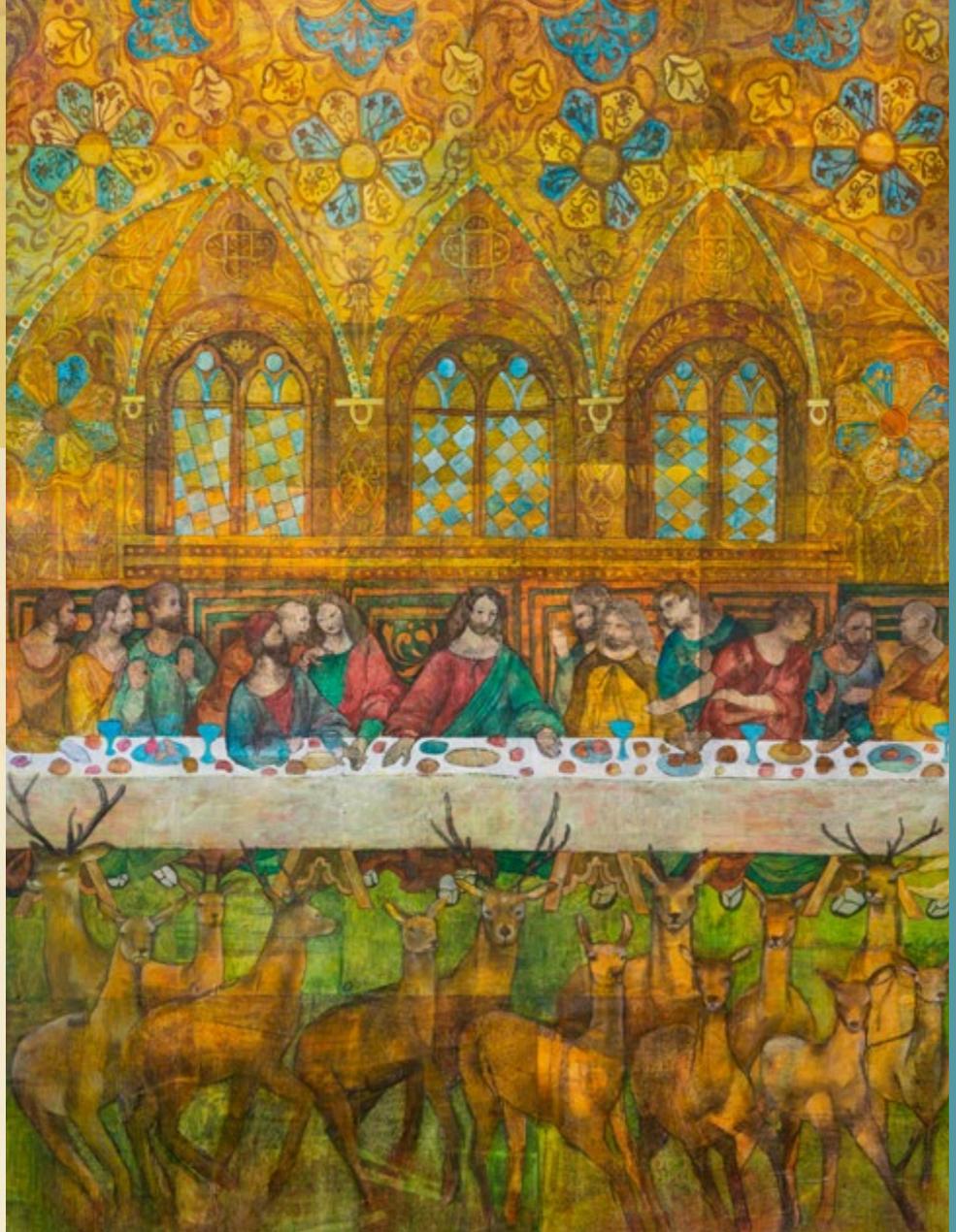
들려주세요

예수님 이야기를

사브리나 질
스콰이어스,
최후의 만찬
(요한복음
13:1~35 참조),
미국

최 근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
소재 교회 역사 박물관에서
제10회 국제 미술품 공모전이
열렸다. 다음은 공모전에 전시되었던
작품들의 일부이다. 전 세계 40여
개국에서 출품된 944개의 작품들 중
98개의 작품이 선정되었다. 예술가들은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관련된
일화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었다. 이런 일화의 해석이 각
그림, 조각, 도예품, 사진, 콜라주, 자수,
스테인드글라스, 그리고 디지털 작품에
잘 묘사되었다.

전시된 작품들은 lds.org/go/10art에서
볼 수 있다.



메간 루스 게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마태복음
2:1~2 참조), 미국



마이클 맘, 하나님과
함께하시려(조셉
스미스 역, 마태복음
4:1 [경진 안내서]
참조), 미국, Purchase
Award 수상자

로빈 브렐, 구운 떡과 말린
물고기를 든 아이(요한복음
6:9~14 참조), 미국
롭 아담, 변형의 산(마태복음
17:2 참조), 미국





엘스페스 영,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요한복음 10:16 참조), 미국

케이틀린
맥스필드 코널리,
믿음이 충만한
여인(마태복음
9:22 참조), 미국,
Purchase Award
수상자



에린 미즈,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가난한 과부의
현금(마가복음 12:44 참조),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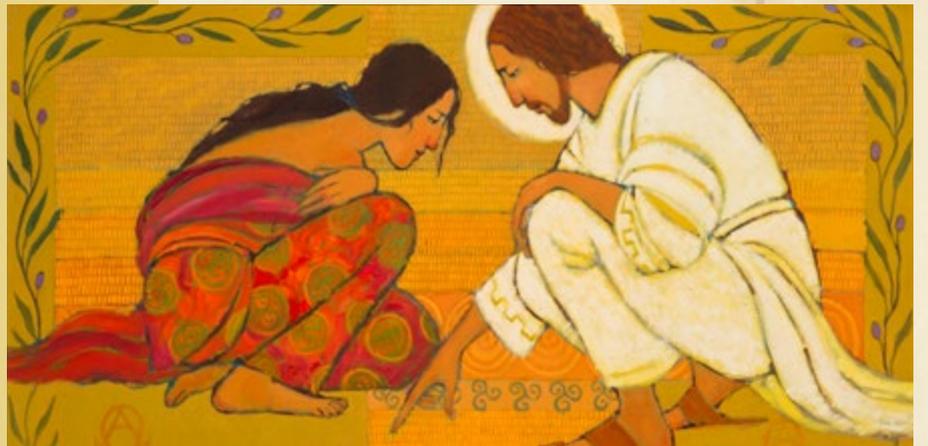
매튜 하이럼 텔, 구원의
계획(요한복음 3:16
참조), 오스트레일리아



마이클 다이엔
오니언, 선한
목자(누가복음 15:4
참조), 미국



캐슬린 피터슨,
간음하여 잡힌 여인과
예수님(요한복음 8:11
참조), 미국



클락 켈리
프라이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마가복음 15:39
참조), 미국



레스터 리 요콧,
동산에서(마태복음
26:36~39 참조), 미국



카즈코 코빙턴,
끝이 없는
세상(모세서 2장
참조), 일본

대니얼 앨마 윌슨, 어둠
속의 빛(요한복음 8:12
참조), 미국





엠 러셀 벨라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연구와 신앙으로

여러분은 가르침을 통해 사람들의 삶을 어루만졌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으로 돌아가는 이 여정에서 그분의 자녀들을 이끌고 도왔습니다. 그 사실을 통해 기쁨과 화평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고 든 비 힝클리(1910~2008) 회장님은 총관리 역원 훈련 모임에서 교회 교리를 가르치는 것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길에서] 탈선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독창적이고, 새로우며, 남다른 것을 가르치려 노력하는 과정에서 이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기본 교리와 완전히 조화되지 않는 것들을 가르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 우리는 더욱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 우리는 망대 위의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¹

21세기에 교회 교육이 발전해 나가는 동안, 우리의 교육자들이 소중한 청소년들의 삶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심어 주고자 한다면, 교육자들은 가르칠 준비를 할 때나 가르치는 방식 및 가르치는 내용 면에서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를 고심해야 합니다.

학생들의 솔직한 질문에, “걱정할 것 없어요.” 하고 답하던 시절은 지나갔습니다. 학생이 심각한 걱정거리를 토로하면, 교사가 그 문제를 회피하고자 자신의 간증을 대담으로 대신하던 시절도 지나갔습니다. 학생들이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으로부터 보호받던 시절도 지나갔습니다.

교회 교육 기구 종교 교육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에서 벨라드 장로는 교회의 모든 교사에게 적용될 수 있는 원리와 가르침을 전했다.



다행히도 주님은 교사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이 시의적절하며 시대를 초월하는 권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신앙이 있는 것이 아닌즉, 너희는 지혜의 말씀을 부지런히 구하고 서로 가르치라. 그러하도다, 가장 좋은 책에서 지혜의 말씀을 구하라. 참으로 연구와 또한 신앙으로 학문을 구하라.”(교리와 성약 88:118)

이 말씀은 특히 지금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우리의 모든 학생이 다 앞으로 닥칠 시련에 대비할 만한 충분한 신앙을 가진 것도 아니고, 또한 대다수가 인터넷을 통해서 신앙과 가족, 복음 표준에 적대적이며, 갈수록 지속해지는데, 인간의 영혼을 쪼먹는 세상적 영향력에 이미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는 인터넷은 거의 모든 가정과 학생들의 머릿속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배우는 일에서 학습과 신앙을 결부시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가르침으로써 학생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그런 기술과 방법의 본을 보임으로써 학생들을 가르치십시오.

해럴드 비 리(1899~1973)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배움의 과정에서 신앙으로 지식을 습득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피나는 노력과 끊임없는 신앙의 분투가 요구됩니다. ...

게으른 자들은 신앙으로 배울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말했듯이, 사실상 그런 과정에는 온 영혼을 다해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의 생각과 느낌을 끌어내어 이를 하나님과 연결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즉, 올바른 연결 고리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신앙으로 지식을 얻게’ 됩니다.”²

신앙으로 얻은 지식은 순수한 간증을 낳고, 순수한 간증은 삶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다음 세 가지 짧은 이야기가 이를 말해 줍니다.

세 가지 이야기

포비 카터는 1830년대에 성도들과 집합하기 위해 미국 메인 주에 있던 집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친구들은 내 결정에 놀랐고 나 역시 그랬다. 하지만 내면의 무언가가 나를 앞으로 나가게 했다. 집을 떠나는 나를 보고 비통해하시는 어머니를 마주하는 것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일이었다. 마음속으로 영을 느끼지 못했다면 나도 마지막에 흔들리고 말았을 것이다.”³

포비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따라 오하이오 주에서 성도들과 집결한 뒤 이후에 유타 주로 건너갔으며, 교회 회장인 윌포드 우드럽의 아내로서 그와 함께 명예를 메고 살다가 충실한 후기 성도로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매리온 지 롬니(1897~1988)는 대학생 시절에 넉넉지 않은 집안 형편 탓에 선교 사업을 나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느 날 멜빈 제이 벨라드(1873~1939) 장로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장로님의 전기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매리온은] 그 잘나에 자기 인생의 행로가 완전히 바뀌게

되리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이야기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처음으로 매리온은 … 영감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이해했다. 무언가 꿰뚫는 듯하고 복받치는 느낌이 그의 영혼을 가득 채웠다. 그는 … 새로 부름받은 이 사도의 말씀을 들으며 전에는 느껴 보지 못한 감동을 받았다.

… 사도의 얼굴에서 발하는 빛과 진실한 간증은 선교 사업을

나가야 한다는 억누를 수 없는 소망을 매리온에게 심어 주었다. … 매리온은 … 교육을 더 받겠다는 계획을 연기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⁴

곧이어 매리온은 호주로 선교 사업을 떠나 충실히 봉사했습니다. 후에 그는 위대한 사도이자 제일회장단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윌리엄 디 버렛에게 영향을 주었던 어느 나이 든 교사에 관한 이야기로,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이셨던 보이드 케이 패커(1924~2015) 회장이 전해 주신 이야기입니다.

그 교사는 노르웨이인 개종자였고 영어가 서툴렀습니다. 패커 회장의 회고에 따르면, 그 교사에게 그런 제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윌리엄 형제는 자신의 교사에 대해 이렇게 간증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분이 지닌 신앙의 모닥불을 쬐며 우리의 손을 따뜻하게 녹일 수 있었다.”⁵

나중에 윌리엄은 세미나리, 종교 교육원, 교회 학교의 총책임자가 되었습니다.

포비, 매리온, 윌리엄의 경우, 그들의 삶을 영원히 바꾼 촉매제가 된 것은 바로 순수한 간증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세상의 현실을 생각하면, 순수한 간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포비, 매리온, 윌리엄은 영감 어린 선교사와 교사와 지도자에게서 가르침을 받을 때 깨끗하고 순수했으며, 외설물과 저속한 것들에서 완전히 자유로웠습니다. 영은 그들의 부드럽고 순수한 마음을 쉽게 꿰뚫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학생 중 일부는 여러분의 수업을 듣기도 전에 이미 외설물과 저속한 것에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 세대 전만 해도 우리 젊은이들이 교회사와 교리 및 관행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은 기본적으로 교회에서 출판한 자료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출판하는 자료와는 다른 해석이 담긴 자료를 접하는 학생들은 거의 없었으며, 대부분의 우리 젊은이들은 보호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당시 우리의 교과 과정은 의도는 좋았으나, 사실상 학생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관점에서 교회에 대한 모든 사항에 즉각적으로 접근하여 찾아보는 것이 가능해진 오늘날을 대비해 학생들을 준비시키지는 못했습니다. 현재 학생들이 모바일 기기에서 보는 것들은 신앙을 고양하기도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신앙을 저하시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 중 상당수가 복음보다는 구글에 더 친숙하고, 영감보다는 인터넷에 더 익숙하며, 신앙보다는 페이스북에 더 몰입합니다.

교리 익히기

이런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하여, 교회 교육 이사회는 최근에 교리 익히기라는 세미나리 관련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우리 젊은이 중 상당수가 복음보다는 구글에 더 친숙하고, 영감보다는 인터넷에 더 익숙하며, 신앙보다는 페이스북에 더 몰입합니다.

연구로

배움을 추구함

성구 익히기에서 이미 했던 것을 기반으로 삼아, 이 새로운 계획은 학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키워 주고 강화하며, 복음대로 살고 복음을 삶에 적용하는 능력을 키우도록 그들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학생들은 경전과 선지자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영적 지식과 구주의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어떻게 행사해야 하는지를 배울 것입니다. 또한 친구 사이에서나 소셜 미디어 상에서 매일 보고 듣는 질문과 도전에 그리스도의 교리와 복음 원리를 어떻게 적용시킬지에 대해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영감에 따라 시의적절하게 마련된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우리 젊은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리 익히기와 교회 교육 기구의 모든 다른 프로그램들의 성공 여부는 상당 부분 우리의 교사 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과 도전 과제와 더불어, 복음 교사들이 21세기에 맞게 되는 기회와 책임들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교사 여러분은 주님과, 그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학생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또한 자주 진실하게 순수한 간증을 나눠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의 학생들은 교리적, 역사적 내용과 전후 관계를 순수한 간증과 함께 신앙으로 배움으로써 축복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들은 복음을 향한 성숙하고도 지속적인 개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평생의 헌신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숙하고 지속적인 개심이란 그들이 평생 “배 안에 머물고 배를 꼭 붙든다”는 의미입니다.⁶

여러분이 경전과 우리 교회사의 교리적, 역사적 내용과 전후 관계를 이해하려면, 주님이 지시하셨듯이 “가장 좋은 책”을 연구해야 합니다.(교리와 성약 88:118) “가장 좋은 책”에는 경전, 현대 선지자와 사도들의 가르침 및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최고의 후기 성도 학문이 포함됩니다. 연구와 신앙으로 부지런히 배운다면, 여러분은 학생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이 영적으로 고양시키는 믿을 만한 정보만을 받아들이고, 실망과 낙담을 불러오는 반쪽짜리 진실 및 교리, 역사, 관행에 관한 잘못된 해석을 구별해 내는 기술과 태도를 터득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영원한 중요성을 지닌 문제에 대한 답을 찾으려 인터넷에 의존할 때 생기는 문제점을 학생들에게 가르치십시오. 야고보가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글을 검색하라”라고 말하지 않았음을 상기시켜 주십시오.(야고보서 1:5 참조)

현명한 사람들은 정서적, 정신적, 육체적 건강 문제, 특히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를 진단하고 치료할 때 인터넷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건강 전문가, 즉 의료계와 정부가 인정하는, 훈련받고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을 찾습니다. 신중한 사람들은 그에 더하여 두 번째 의견까지도 구합니다.

만약 그것이 정서적, 정신적, 육체적 건강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타당한 방법이라면, 영생이 걸린 문제는 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삶, 가장 소중한 가족 관계, 하나님 왕국에서 얻게 될 신분에 무언가가 잠재적인 위협이 된다면, 우리는 우리를 도와줄 사려 깊고 충실한 교회 지도자들을 찾아야 합니다. 또 필요하다면, 도움을 받기 위해 적절한 훈련을 받았으며 경험과 전문 지식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그것은 제가 스스로 답할 수 없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때 쓰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저는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과 교회사 및 교리 분야의 전문가들에게서 도움을 구합니다.

복음 교사들은 잘 알려지지 않았거나 논란이 많은 주제에 대해 학생들의 가족 외의



신앙으로



사람으로서 가장 먼저 권위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나중에 무엇을 듣고 보건 간에, 여러분이 이미 가르친 내용에 견주어 판단하게 해야 합니다.

영적인 예방 접종

우리는 소중한 선교사들을 선교 임지로 보내기 전에 백신 접종을 하여 해를 미칠 수 있는 질병으로부터 보호받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학생들을 세상으로 내보내기 전에 복음 교리, 경전, 교회사, 기타 때로는 오해받기도 하는 주제들에 대해 충실하고 사려 깊으며 정확한 해석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에게 영적인 예방 접종을 해 주십시오.

잘 알려지지 않았거나 논란이 많은 몇 가지 주제를 말씀드리자면, 복수 결혼, 선견자의 돌, 첫번째 시현에 관한 여러 다른 이야기, 몰몬경 또는 아브라함서 번역 과정, 성 평등 문제, 인종과 신권, 하늘 어머니 등이 있습니다.

주로 우리 젊은이들의 예방 접종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바로 여러분, 교회 교육 기구 교사입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와 책임을 잠시 생각해 볼 시간을 내십시오.

제한 없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기에, 교회 지도자들은 현재 회복의 가르침에 대한 이해와 정확한 내용을 제공하고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 중 가장 두드러진 예는 LDS.org⁷에 실린 11개의 복음 주제 글로, 이 글들은 교회와 관련해 논란이 많고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에 대해 신뢰할 수 있으며 균형 잡힌 해석을 제공합니다.

여러분이 그 글의 내용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관한 질문이 있다면 그 주제를 연구했거나 이해한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다시 말해, 이 글들을 완전히 터득하고자

한다면 “연구와 또한 신앙으로 학문을 구하십시오.”(교리와 성약 88:118)

또한 Joseph Smith Papers[조셉 스미스 기록 웹사이트,⁸ LDS.org에 있는 교회사란, 그리고 충실한 후기 성도 학자들이 저술한 기타 자료들을 숙지하셔야 합니다.

불타는 간증과 더불어 교리와 역사를 사려 깊게 연구함으로써 영적인 예방 접종을 하고 복음의 투명성을 기하는 노력이야말로 학생들이 정보화 시대에서 당면하게 될 문제나 의문, 신앙의 위기를 피하거나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장 훌륭한 해독제입니다.

교사 여러분이 우리 교회사와 교리, 관행을 지금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한 값을 치른다면, 학생들의 질문에 사려 깊고, 조심스러우며, 영감 어린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될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어떤 질문이 있는지 알아보는 한 가지 방법은 그들의 말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교사가 되기 원한다면 먼저 충분히 경청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학생들의 말에 경청하는 것 외에도, 교실에서나 개인적으로, 어떤 주제에 대해서라도 질문하도록 학생들에게 권유하십시오. 학생들이 물어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는 “왜 그렇죠?”입니다. 이해하고픈 간절한 마음으로 물을 때, “왜 그렇죠?”라는 질문은 훌륭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선교사들이 구도자에게서 듣고 싶어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왜 이곳에 있습니까? 왜 선한 사람들에게 나쁜 일들이 일어나죠? 왜 기도해야 하죠? 왜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죠? 종종 “왜?”라는 질문은 영감과 계시를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계획을 알고 이해하는 것은 여러분이 “왜?”가 붙는 대부분의 질문에 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질문에 답하는 문제에 관한 마지막 사항입니다. 대부분은 아니더라도 복음은 인생의 여러 중요한 질문에 답을 주지만, 우리에게 모든

것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주어지지 않는 탓에 어떤 질문은 현세에서는 답을 찾을 수 없다는 점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야곱서에서 배우는 바와 같습니다. “보라, 주의 일이 크고 기이하다. 그의 비밀의 깊이는 찾지 못할 것일런니, 사람이 그의 모든 길을 찾아냄은 불가능하니라. 또 자기에게 계시되지 아니하면 아무도 그의 길에 대해 알지 못하나니.”(야고보서 4:8; 또한 교리와 성약 101:32~34 참조)

경고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상당수 학생들이 그러하듯이, 여러분 또한 자신이 경전, 교리, 역사

학생들을 가르치고 질문에 답할 때, 신앙을 증진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근거 없는 소문이나 과거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교리 및 관행에 관한 케케묵은 해석과 설명을 전해서는 안 됨을 경고하는 바입니다. 가장 현명한 처사는 살아 있는 선지자와 사도들의 말씀을 연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사실이 아니며, 오래되거나 이상한 것들을 가르치지 않도록 mormonnewsroom.org와 LDS.org를 통해 교회의 최신 현안, 정책, 발표를 숙지하고, 저명하고 사려 깊으며 충실한 후기 성도 학자들의 저술을 참조하십시오.

자신이 아는 범위 이상을 안다고 여기는 현상을 연구한 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사람들, 특히 전문가를 자처하는 이들은 자기에게 있는 이런 성향 때문에 본인이 잘 안다고 여기는 분야를 세밀하게 연구하지 않는다.”¹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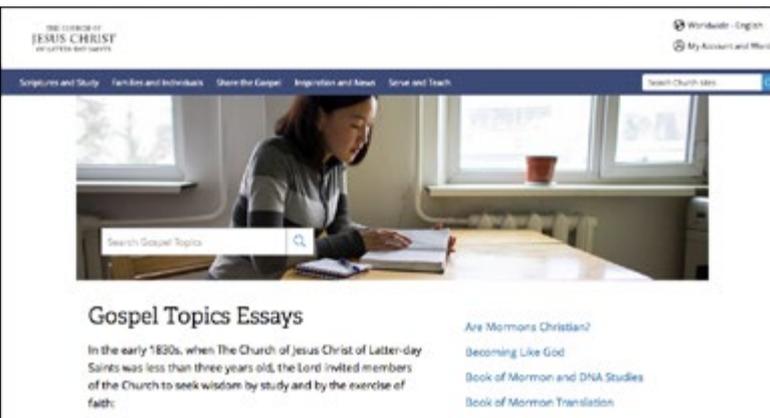
평생 배우는 자가 되는 것 외에도, 성신이 여러분의 내면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개인적인 생활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매일 하는 진실한 기도, 충실한 금식, 규칙적으로 경전과 살아 있는 선지자의 말씀을 공부하고 숙고하는 것, 안식일을 즐거운 날로 만드는 것, 겸손하게 성찬을 취하고 항상 구주를 기억하는 것, 가능한 한 자주 성전에서 예배하고, 마지막으로 가까운 이들뿐 아니라, 전 세계의, 도움이 필요하고 가난하고 외로운 이들을 돕는 일이 포함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와 책임을 다하기 위해, 교사 여러분은 자신이 가르치는 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용기를 내어 여러분이 신뢰하는 이들, 즉 배우자, 신권 지도자, 상사에게 권고와 교정을 구하십시오. 제자의 길을 걷는 일에서 개인적으로 어떤 부분을 발전시킬 수 있을지 그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성신을 떠나게 하는 일은 무엇이든 피하십시오.

이 밖에도 가끔 자기 자신과 개인 접견을 하고 니파이후서 26장 29~32절, 앨마서 5장 14~30절, 교리와 성약 121편 33~46절을 거듭 살펴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우리 모두가 직면하게 될 유혹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미리 아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뭔가 바뀌어야 할 것이 있다면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하십시오.

동료들의 의도에 의문을 품으려는 유혹을 피하십시오. 그 대신, 자신의 마음을 깊이 성찰하고 자신의 소망과 동기를 찾아보십시오. 그런 후에야만 구주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시고 여러분의 소망과 동기를 그분의 것과 일치시킬



LDS.org에 실린 11개의 복음 주제 글은 교회와 관련해 논란이 많고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에 대해 신뢰할 수 있으며 균형 잡힌 해석을 제공합니다.

전문가라고 믿게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사람이 어떤 주제에 대해 많이 안다고 여길수록, 그가 실제로 알고 있는 것 이상을 알고 있다고 주장하기가 쉬우며, 심지어 지식을 조작하고 정보를 날조하기까지 할 수 있다.”고 합니다.⁹

자신이 실제로 아는 것 이상을 아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려는 이런 유혹을 우리 복음 교사들은 피해야 합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라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에게는 학생들이 하는 깊이 있는 질문에 가능한 한 최선의 답을 찾을 책임이 있습니다.(교리와 성약 101:32~34 참조)

것입니다.

자라나는 세대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고 이해하며 받아들이고 이에 동참해야 합니다. 이 계획을 이해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거룩한 통찰력을 얻게 되고, 교회의 거의 모든 교리와 관행 및 정책을 이해할 시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날 복음을 가르치는 교사들은 21세기의 젊은이들에게 가족 선언문에 정의된 것처럼 신성하게 제정된 결혼의 교리와 가족의 역할을 비롯하여 이 구원의 계획에 관한 정확한 원리를 가르칠 기회와 책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¹¹



용기를 내어 여러분이 신뢰하는 이들, 즉 배우자, 신권 지도자, 상사에게 권고와 교정을 구하십시오. 제자의 길을 걷는 일에서 개인적으로 어떤 부분을 발전시킬 수 있을지 그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명하셨다는 것을 배웁니다.(창세기 1:27~28 참조)

행복의 계획은 가족과 더불어 시작되고 끝난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참으로 가족은 전세에서 시작되었고, 거기서 우리는 하늘 부모 가족의 일원으로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중국에는 가족 내의 헌신과 사랑이 깃든 관계가 계속 존재할 뿐만 아니라 증식 과정을 통해 더 확대될 것입니다.(교리와 성약 131:1~4; 132:19 참조)

영원한 결혼에 관한 교리

영원한 결혼과 가족에 관한 교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행복의 계획에서 매우 중대한 부분입니다. 이 계획에는 성전에서 인봉된 우리 가족이 해의 왕국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가족의 일부가 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교리는 하나님 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영의 자녀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우리는 창세기에서 그분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아버지 아담과 어머니 이브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영원한 운명, 또한 그 외의 모든 것이 달려 있으며, 만유를 연결하는 중심점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속죄 희생은 서로 사랑하고 돌보는 결혼 생활과 가족을 포함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아무리 의롭더라도 남자나 여자 혼자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에게 주시는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혼자서는 필수 요소를 절반만 충족할 수 있을 뿐이며, 해의 왕국의 가장 높은 단계에 거할 수도 없습니다.(고린도전서 11:11; 교리와 성약 131:1~4 참조)

지상 생활의 목적은 육체를 얻고, 선택의지를 행사하며, 이전에는 하늘 부모만 맡을 수 있었던 남편과 아내 및 부모 역할을 받아들임으로써 더욱더 하나님처럼 되는 것임을 여러분의 학생들은 이해해야 합니다.

합당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는 하나 이생에서 부부로 인봉받지 못했거나 자녀를 가질 수 없는 이들도 다음 세상에서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됨을 선지자들은 확언해 주었습니다.

주님의 교회에서는 우리 모두가 복음 안에서의 형제 자매로서 함께 예배하고 봉사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젊은이들에게 가르치십시오. 리하이가 가르친 바와 같이,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 대한 그분의 목적과 희망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음을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십시오. “아담이 타락한 것은 사람이 존재하게 하려 함이요, 사람이 존재함은 기쁨을 갖기 위함이니라.”(니파이후서 2:25)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당신께서 규정한 결혼을 받아들이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창세기 1:28)라고 하신 첫 번째 계명에 순종하기를 바라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할 뿐만 아니라 그 계획을 통해 당신의 아들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쁨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교회의 교육자로서 하나님의 행복의 계획을 청소년들이 명확히 이해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계획을 통해 그분의 자녀들에게 진정한 기쁨이 임할 수 있음을 이해하도록 말입니다. 그들이 그 계획을 알고, 받아들이며, 동참하고, 수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40년간 총관리 역원으로 봉사하면서, 저는 나이에 상관없이 자신의 영원하고도 거룩한 운명을 위한 그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교회 회원들을 보면 염려스럽습니다.

순수한 간증

에는
삶을 변화시킬 힘이 있습니다.

동료 교사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의 위대한 행복의 계획에 대한 지식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왜 그렇죠?”라는 대부분의 질문에 대답이 될 수 있는지 교리적으로, 영적으로 설명할 이 기회를 구하고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하늘 아버지와 어머니의 영의 자녀로서 살았던 전세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 보이는 것은 왜 이 지구가 창조되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게 해 줍니다. 필멸의 삶의 필수적인 목적 하나는 바로 이번에는 자녀가 아니라 부모로서 직접 가정을 꾸리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행복을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의 교리와 목적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력을 쌓아 가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대해 계속 가르치십시오.

결론

이제 결론을 내리고 요약하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요점은 이렇습니다.

- 연구와 신앙으로 하는 학습을 순수한 간증과 결부시키도록 학생들을 가르친다.
- 그들에게 배 안에 머물고 배를 꽉 붙들라고 가르친다.
- 학생들에게 모바일 기기를 자제하고 인터넷보다는 성신에 더 의지하도록 가르친다.
- 학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나오는 구원의 계획의 진리로 예방 접종을

시킨다.

- “왜?”라는 질문이 복음을 이해하게 도와주는 훌륭한 질문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한다.
- 복음 주제 글의 내용을 숙지한다.
- 과도한 주장을 지양하고,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 평생 배우는 자가 된다.
- 여러분이 신뢰하는 사람으로부터 권고와 교정을 구한다.
- 우리의 영적인 준비, 근면, 효과성을 점검하고자 가끔씩 자신과 접견한다.
- 행복의 계획은 가족과 더불어 시작되고 끝난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친다. 구원의 계획을 항상 마음 속에 기억한다.
- 결혼과 가족이 영속적인 기쁨을 가져옴을 학생들에게 가르친다.

연구, 신앙, 순수한 간증을 학습과 결부시킬 때 참되고 영속적인 개심이 가능함을 기억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는 강한 신앙이야말로 우리의 영적인 힘과 성장에 필수적입니다.

여러분은 가르침을 통해 사람들의 삶을 어루만졌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에서 돌아가는 이 여정에서 그분의 자녀들을 이끌고 도왔습니다. 그 사실을 통해 기쁨과 화평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

주

1. General Authority training meeting, Salt Lake City, Sept. 29, 1992.
2. Harold B. Lee, in Clyde J. Williams, ed., *The Teachings of Harold B. Lee* (1996), 331.
3. Edward W. Tullidge, *The Women of Mormondom* (1877), 411-14 참조.
4. See F. Burton Howard, *Marion G. Romney: His Life and Faith* (1988), 62-64.
5. Boyd K. Packer, “A Tribute to the Rank and File of the Church,” *Ensign*, May 1980, 62.
6. 엠 러셀 벨라드, “배 안에 머물고 배를 꽉 붙드시시오!”, *리아호나*, 2014년 11월호, 89~92쪽.
7. Lds.org/topics/essays 참조.
8. Josephsmithpapers.org 참조.
9. Brent W. Webb, “Quest for Perfection and Eternal Life” (Brigham Young University annual university conference faculty session, Aug. 24, 2015), 10, speeches.byu.edu; 또한 Stav Atir, Emily Rosenzweig, and David Dunning, “When Knowledge Knows No Bounds: Self-Perceived Expertise Predicts Claims of Impossible Knowledge,” *Psychological Science*, Aug. 2015, 1295-1303 참조.
10. In Brent W. Webb, “Quest for Perfection and Eternal Life,” 10.
11.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아호나*, 2010년 11월호, 129쪽.



신앙과

자유를 찾아서

에바 월버거

우 리 형제들은 복음대로 생활하기 위해 부모님께서 치르신 희생에 대해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고, 부모님의 수고 덕분에 우리는 지금껏 축복을 누렸다. 우리 부모님을 비롯한 체코의 초기 성도들이 후손들에게 복음의 축복을 물려주고자 겪어 낸 모든 일에 나는 깊이 감사해 왔다.

우리 어머니는 전 체코슬로바키아(현재 슬로바키아)의 포프라트에서 태어나셨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체코군에서 복무하셨던 외할아버지는 다른 수많은 군인들처럼 독일 점령군의 눈을 피해 가족들을 이끌고 근처 숲으로 숨어들어가셨다.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는 한 살과 다섯 살이던 우리 어머니와 이모를 데리고 담요 속에 웅송그린 채 배급된 각설탕을 먹으며 그곳에서 닳새를 보내셨다.

두 분은 그 당시 교회 회원도 아니셨고 기도를 자주 하는 분들도 아니셨다. 하지만 이러한 시련을 겪는 동안 그분들은 마음이 부드러워지셨다. 외할머니의 일지에는 이런 기록이 있다. “오늘 밤 나는 무릎을 꿇고 더 높은 권세가 있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해야겠다는 열망을 느꼈다. 그래서 나는 근처 숲으로 들어가 무릎을 꿇고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기도하며 간절히 도움을 청했다.”

할머니의 기도는 응답되었다. 숲 속에 있던 군인 가족 중에는 발각되어 죽음을 맞이한 사람도 있었지만, 우리 조부모님은 두 딸과 함께 기적처럼 살아남으셨다. 주님께서서는 이토록 어렵고 힘겨운 경험을 통해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의 마음에 신앙과 신뢰의 씨앗을 심어 주셨다.

종교의 자유를 찾아나섰던 우리 부모님은 체코슬로바키아를 출발하여 캐나다에 이르기까지 주변의 후기 성도들이 베푼 친절과 환대 덕에 축복을 얻으셨다.

신앙과 박해

몇 년 후 전쟁이 끝나고 외할아버지 가족이 여전히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생활하시던 어느 날, 젊은 선교사 두 명이 할아버지 댁의 문을 두드렸다. 가족들은 작은 지부에 참석하여 복음 토론을 한 후, 복음이 참되다는 간증을 얻고 침례를 결심했다. 하지만 침례 접전을 약속한 저녁에 선교사와 교회 지도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는 다음번 지부 모임에 가서야 정치적 격변과 쿠데타로 모든 선교사가 체코슬로바키아를 떠나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앞으로는 종교 활동도 모두 금지된다고 했다. 그런데도 그 지역의 몇 안 되는 후기 성도들은 신앙을 지켰고, 이제 현지의 지도력과 신권 열쇠를 통해 인도받게 되었다. 1950년이 되어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는 이모와 함께 비밀리에 침례를 받으셨다.

그 후 몇 해 동안, 할머니와 (이제 십 대가 된) 어머니를

1968년 8월, 가족들은 프라하의 집에 작별을 고하고 조용히 집을 빠져나와 오스트리아로 향했다.



비슷한 지부의 회원들은 종종 비밀경찰에 끌려가 종교 활동에 관해 심문을 받곤 했다. 할머니는 다섯 시간에 걸쳐 공격적인 심문을 받은 적도 있으셨다. 심문관은 할머니가 자녀들에게 종교를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할머니를 오 년간 징역에 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할머니는 이렇게 기록하셨다. “나는 평정을 유지하며 말했다. ‘내가 내 아이들에게 종교를 가르침으로써 하나라도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나를 투옥해도 좋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때부터 그들은 거듭 나를 소환했다. 그들은 교회를 비난했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했다. 심문관들이 그럴수록 나는 더욱 교회에 매달렸다. 참된 교회는 늘 박해를 받기 [마련이니깐].”

어머니는 또 이렇게 기록하셨다. “가장 힘겹던 그 몇 해 동안, 회원들은 일요일마다 지부 회장님 댁에서 모임을 했다. 소리 내어 부를 수 없었기에 우리의 찬송가는 항상 소리가 작았다. 우리는 지부 회장님이 투옥되기를 바라지 않았다. 18년 동안 모임은 그렇게 계속되었고, 우리는 모두 로키 산맥으로 가서 [솔트레이크시티]에 정착할 날을 꿈꾸고 있었다.” 가족 전체가 해외여행을 승인받기 어려운 시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소망이 있었다.

어머니는 20대에 접어들자 교회 회원과 결혼하여 반드시 성전에서 인봉받기를 간절히 기도하셨다.

새로운 삶을 찾아서

농촌에서 자란 아버지는 도시로 나와 학교에 다니던 시절에 어머니를 만나셨다. 어머니가 전문 오페라 가수로 첫발을 내디딜 무렵이었다. 두 분이 서로 알아 가던 중에 어머니는 아버지께 교회를 소개했다. 아버지가 침례받기 전이었지만, 부모님은 1967년 2월 18일에 결혼하셨다.

그해 말, 감사하게도 오빠가 태어났다. 오빠가 태어난 지 8개월이 되었을 때, 지부 회장님은 회원들이 체코슬로바키아를 떠나 자유로이 예배할 수 있는 곳으로 인도받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계시를 받으셨다. 1968년 8월, 러시아가 체코슬로바키아를 침공하여 국경과 나라 전역에 큰 혼란이 일었다. 지부 회장님 말씀대로 준비를 하고 있던 지부 회원들은 오스트리아 빈으로 탈출했다.

할머니는 우리 부모님과 함께 체코슬로바키아를 떠나며 다음과 같이 기록하셨다. “아파트 주민들이 모두 잠든 밤, 우리는 집에 작별을 고하고 행여 아기가 울지나 않을까 불안해하며 조용히 집을 빠져나왔다. 우리 건물에는 비밀경찰에 소속된 정보원 셋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일을 비밀에 부쳐야 했다.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셨고, 우리는 탈출에 성공했다. 당연히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은 알고 있었지만, 빈에 도착한 뒤에는 또 어디로 가야 되는지조차 모르고 있던 상황이었다. 당시 우리는 그런 일을 걱정할 여력이 없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신앙을 지킬 때, 그분께서는 지부 회장님을 통해 그분의 약속을 계시해 주셨다.”



우리 부모님은 짐 가방 하나, 유모차 한 대, 몇 달러의 돈만 들고 켈거리에 도착했다. 캐나다의 회원들은 곧바로 우리 가족에게 차편을 마련해 주고, 장을 봐 주며, 집을 찾아 주는 등 도움을 주기 시작했다.



난민을 위한 봉사

“여러분이 각자의 시간과 상황에 따라, 이웃과 지역 사회에 사는 난민들에게 어떻게 봉사할 수 있을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개인이나 가족 혹은 단체별로 봉사하면서 우정과 멘토링, 기타 그리스도처럼 행하는 봉사를 베풀 기회입니다.”

린다 케이 버트,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 “나그네 되었을 때”, *리아호나*, 2016년 5월호, 14쪽.

새로운 땅에서의 환대

외할머니와 부모님은 다른 두 가족과 함께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빈에 있는 보클린슈트라세 교회 건물 지하에서 생활하셨다. 그리고 그 한 달 동안, 아버지는 선교사와 복음 토론을 하고 침례를 받으셨다. 함께 지내던 세 가족 중 여러 사람이 일자리를 얻었으며, 한 명도 빠짐없이 캐나다 앨버타 캘거리로 이민을 갈 수 있을 때까지 다 같이 월급을 모았다. 캘거리의 악천후 탓에 비행기는 1968년 11월 5일야아 애드먼턴에 착륙할 수 있었다.

정든 친척과 문화와 땅을 등지고 길을 나선다는 것은 분명 엄청난 희생이었을 테지만, 이 일은 여러 면에서 고난의 시작에 불과했다. 짐 가방 하나, 유모차 한 대, 캐나다 돈 32달러만 들고 캘거리에 도착할 당시, 부모님은 몹시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너그럽게도 캐나다 회원들은 차편을 마련해 주고 장을 봐 주고 집을 찾아 주는 등 주저 없이 우리를 돕기 시작했다. 부모님과 할머니는 일주일 만에 침대, 식탁과 의자, 소파, 유아용 침대, 침구류, 그릇이 갖춰진 것은 물론 찬장에 음식까지 채워진 집을 얻을 수 있었다. 어머니는 기대하지도 않았던 물건들이 갖춰진 것을 보고 얼마나 놀라고 감격했는지, 그리고 이러한 도움을 받게 되어 얼마나 감사했는지를 일지에 기록하셨다.

그러나 가슴 깊이 감사하는 한편으로 다른 감정들이 밀려오기도 했다. 가족들은 문화 충격을 피부로 느꼈으며, 이에 대처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다. 다들 캘거리에 살던 첫해라 하면, 영어 수업과 아빠의 직장으로 이어지던 추운 길밖에는 떠오르지 않았다. 여기서도 고향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려 안간힘을 써 보아도, 다른 점이 너무 많았기에 생활하기는 녹록지 않았다. 캘거리의 새로운 와드에서 만난

성도들은 새로 도착한 회원들을 돕는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언어의 장벽 속에서도 힘써 노력했다. 가족들은 매주 일요일이면 영어를 이해하도록 돕는 영에 의지하여 성찬식에 참석했고, 그곳에서 성약을 새롭게 하며 힘을 얻었다.

영원한 축복

우리 가족 다섯 명은 1976년 10월에 앨버타 카드스틴 성전에서 함께 인봉되었다. 20년도 더 이날을 고대하신 어머니는 어린 시절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나라에서 역시 상상하지 못했던 언어로 마침내 기도의 응답을 받으셨다. 그 당시 나는 8살 무렵이었다. 어린 우리가 인봉실에 들어가자 부모님이 눈을 반짝이며 미소를 짓던 모습은 멋진 추억으로 남아 있다.

할머니도 그날 성전에 함께 계셨다. 다 같이 카드스틴에 도착한 후 성전 불빛을 보고 기뻐하시던 할머니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몇 해 지나 캘거리에서 은퇴하신 할머니는 카드스틴으로 거처를 옮겨 성전 봉사에 많은 시간을 쏟으셨다. 오르간 연주를 좋아하시던 할머니는 기꺼운 마음으로 그곳에 경건한 분위기를 더하곤 하셨다. 할머니는 주변의 모든 사람을 친절로 대하시며 구주를 향한 간증과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다. 할머니는 내게 강인한 후기 성도 여성의 모범이시다.

우리 가문의 개척자로서 직장 and 친척, 고국, 재산을 등지는 희생을 마다치 않으신 우리 부모님께 나는 말할 수 없이 감사하다. 겉으로는 부모님이 많은 것을 포기하신 것 같지만, 사실 주님은 부모님은 물론 우리 후손들까지도 복음의 원리에 따라 살 수 있도록 매우 풍성한 축복을 내려 주셨다. ■

글쓴이는 미국 아이다호 주에 산다.

파랑 전구 하나

부 모님은 성탄절 기간에 집을 어떻게 장식할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곤 하셨다. 색맹 탓에 빨강, 초록, 갈색이 모두 엷비슷하고 흐릿하게만 보이는 아버지께 파랑은 밝고 아름다운 색이었다. 아버지는 브리검 영 대학교 미식축구팀의 열혈 팬이기도 하셨는데, 브리검 영 대학교를 상징하는 색에 파랑이 있었다.

파랑을 그렇게 좋아하신 아버지는 전구도 파랑으로 걸고 싶어 하셨다. 하지만 어머니가 파랑은 성탄절 색이 아니라고 하시는 바람에, 아버지는 매년 지붕 둘레로 빨강, 초록, 하양 전구가 줄줄이 이어진 성탄절 조명을 보기 좋게 걸어 주곤 하셨다. 그러고는 어머니를 놀리느라 장난 삼아 전구 하나를 밝은 파랑 전구로 바꿔 다시는 것이었다.

가까이 보면 빨강, 초록, 하양 전구들 틈에서 파랑 전구 하나를 볼 수 있었다.

파랑 전구가 달리는 곳은 해마다 달랐다. 좀처럼 보이지 않는 구석진 곳이 되는가 하면, 차고나 앞쪽 현관이 되는 때도 있었다. 파랑 전구 달기는 어머니 아버지 사이에 벌어지는 즐거운 놀이 같았다.

어느 해, 아버지는 성탄절을 이틀 앞두고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다. 아버지의 장례식에서는 아버지가 매해 다셨던 파랑 전구 일화가 전해졌다. 이튿날 밤, 창밖을 바라보시던 어머니는 길 건너 이웃집 현관에 걸린 하양 전구들 사이에서 파랑 전구 하나가 반짝이는 것을 발견하셨다. 며칠 안에 어머니의 여러 이웃과 친구들이 자기 집을 장식한 성탄절 조명 속에 파랑 전구를 함께 달았다. 정원수를

모두 파랑 전구로 장식한 집도 있었다.

파랑 전구로 집을 장식하여 어머니께 사랑을 보여 주신 어머니의 친구와 이웃들께 정말 감사하다. 그분들 덕분에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 슬퍼하고, ... 위로를 필요로 하는 자들을 위로[한다]”라는 말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다.(모사이야서 18:9)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선물로 주셨음에 감사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아버지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

에이미 브라운, 미국 유타 주

가 가까이 보면 빨강, 초록, 하양 전구들 틈에서 파랑 전구 하나를 볼 수 있었다.

상화: 앨런 간스



여인은 걸음을 옮기며 가슴에 몰몬경을 끌어안고 있었다.



상화: 스티븐 펠로우스

기쁨을 나누며

남편과 함께 피레네 산맥에 있는 프랑스 타르브에서 선교사로 봉사할 때의 일이다. 때는 성탄절 전야였고, 우리는 몰몬경을 나눠 주기 위해 베르뵙 광장에 가 보기로 했다. 그러나 텅 빈 길에 선 우리는 이렇게 많은 몰몬경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기 시작했다. 그때, 딱히 어디 갈 곳이 없어 보이는 한 젊은이가 불쑥 눈에 들어왔다. 우리는 젊은이에게 다가가 몰몬경을

내밀었다. 그는 우리가 복음 이야기를 나누자 반색하며, 자신은 그날 밤을 함께할 사람이 없으니 몰몬경을 읽으며 외로움을 달래 보겠다고 했다.

젊은이가 떠난 뒤 다시 거리를 둘러보는데, 그 차디찬 밤에 한 여인이 천천히 우리에게 다가왔다. 우리가 몰몬경을 건네자 여인의 눈은 행복으로 빛났다. 여인은 최근에 남편을 잃었는데 우리가 염려해 주어서 행복하다며 정말로

감사하다고 했다. 여인은 걸음을 옮기며 가슴에 몰몬경을 끌어안고 있었다.

그날 밤, 우리는 가져갔던 몰몬경을 한 권도 남기지 않고 모두 나눠 주었다. 몰몬경을 받아간 사람들은 대부분 외롭고 어려운 상황에서 사랑이 절실한 이들이었다. 우리는 사람들과 기쁨을 나눈 덕분에 큰 성탄절 선물을 받았다는 느낌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 제닌 드니스 파브리, 프랑스 생탕드레레베르제

예수님을 만나면

몇 주를 기다리고 기다린 끝에 드디어 성탄절 전야가 되었다. 우리 집에는 플레처 할아버지 내외 분과 우리 세 딸 내외, 그리고 그 자녀들까지 가족들 대부분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다. 땅거미가 내리고 거리가 불빛으로 밝아질 즈음이었다. 집들은 아름다운 장식으로 빛나고 창문 너머로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행복하게 반짝이고 있었다.

우리는 교회가 여러 해 동안 캐나다 앨버타 주의 켈거리에서 하고 있는 예수님 탄생 야외극을 보러 나갈 준비를 하는 중이었다. 훌륭한 음향 시스템과 함께 나귀와 양, 동방박사들, 목자들, 로마 병사들, 천사들이 등장하는 이 야외극을 관람하러 가는 일은 성탄절

전야가 될 때마다 우리 가족이 손꼽아 기다리는 행사였다. 야외극은 소란스럽게 성탄절을 보내는 우리에게 평화와 사랑의 정신을 불어넣으며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일깨워 주었다.

우리는 야외극이 열리는 헤리티지 파크에 도착하기가 무섭게 물론 태버내클 합창단의 아름다운 음악과 구주 탄생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손주 중 제일 멋진 로렌은 당시 세 살이었다. 그 아이는 눈앞에 펼쳐지는 장면과 음향, 이야기에 흠뻑 빠져 있었다. 별이 총총한 맑은 하늘 아래, 찬 공기 속으로 우리의 입김이 번졌다. 우리는 요셉과 마리아를 맡은 배우들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하라는 가이사 아구스도의 명을 따르는 장면을 보고 있었다. 마리아 역을 맡은 배우는 “잉태”(누가복음 2:5

참조)한 몸이었고, 요셉과 마리아가 머물 곳으로 찾아낸 곳은 누추한 마구간뿐이었다. 그곳에서 마리아는 “첫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는 탓이었다.”(누가복음 2:7 참조) 이번에는 목자를 맡은 배우들이 “밤에 ... 밖에서 자기 양 떼를 지키[는]” 언덕 위로 스포트라이트 조명이 비쳤다.(누가복음 2:8 참조) 불현듯 천사 복장을 한 배우가 눈부신 조명을 받으며 극적으로 공중에 등장했다. 바로 그때, 로렌이 애정 어린 목소리로 외쳤다. “예수님, 저예요, 로렌이에요!”

주변에서는 로렌의 인사를 들은 사람들이 뜻밖의 사건에 즐거워하며 나지막이 웃었다. 로렌은 그저 천사를 예수님으로 잘못 본 것이었지만, 그



일로 우리는 그해의 야외극을 더 인상 깊게 간직하게 되었다. 로렌은 예수님이 자신을 아신다는 것을 알았고, 우리는 그분이 진정 우리 한 명 한 명을 아신다는 사실을 되새길 수 있었다. 우리는 혹여 로렌이 자신이 바로 삼 년 전에 떠나온 구주를 조금이라도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다. 천사의 등장과 함께 터져 나온 로렌의 인사로, 우리가 그분을 만날 때 우리가 그분을 알아볼 것이라는 소망이 생겼다. 구주를 향한 로렌의 사랑과 로렌을 향한 구주의 사랑은 그 추운 성탄절 전야에 우리 가슴에 온기를 더해 주었다. ■

그레그 프린스, 캐나다 앨버타

불 현듯 천사 복장을 한 배우가 눈부신 조명을 받으며 극적으로 공중에 등장했다.



천사들의 성찬식

세 살배기 아들 드루는 추수감사절 며칠 뒤부터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이면 일어나 아침을 먹고 옷을 갈아입는 등 괜찮아 보이던 아이가 오후가 되면 기력이 약해지고 음식을 입에 대려고 하지 않았다.

몇 주가 지나도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결국 12월 18일 금요일 오후 3시경, 나는 드루를 데리고 의사를 찾아갔다. 드루는 서지도 걸지도 못했고 살갓도 창백했다.

나는 의사에게, “지난 3주 동안 오후와 저녁이면 늘 이런 상태였어요.”라고 말했다. 의사는 드루를 한번 살펴보더니 당장 그를 입원시켰다. 병원에서 몇 가지 검사를 해 보았지만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 수가 없었다.

이튿날, 드루는 다른 병원으로 보내졌다. 그 일요일 아침, 나는 맥이 빠져 있었다. 이를 동안 두 군데 병원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해 보았지만 아이가 어떻게 잘못된 건지는 오리무중이었다. 무엇보다도, 그날은 성탄절을 바로 앞둔 일요일이었다. 나는 한 해의 성찬식 중에 성탄절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성찬식을 가장 좋아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 와드에서 하는 아름다운 음악과 말씀을 모두 놓칠 터였다.

남편과 함께 드루를 데리고 병원 내 성찬식이 열리는 곳으로 걸어가는

마음은 몹시도 참담했다. 나는 탁자로 다가가 순서지 한 장을 집어 들고 고개를 떨군 채 계속해 앞으로 걸어가다 누군가와 몸이 부딪혔다.

나는 고개를 들고 “죄송합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앞에는 아무도 없었다. 성찬식이 열릴 장소를 들여다보니 그곳은 강당인 것 같았다. 무대에는 연사들이 앉을 의자 몇 개와 피아노, 그리고 성찬이 준비된 탁자와 그 뒤로 의자 몇 개가 놓여 있었다. 강당에는 아픈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드문드문 자리를 채우고 앉아 있었는데, 그중에는 수액 주사를 맞고 있는 아이도 여럿 있었다.

나는 강당을 둘러보며 천사들이 함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우리도 자리를 잡고 앉았고 나는 설 새 없이 눈물을 흘렸다. 일 년 중 가장 아름다운 절기에 온갖 병고로 병원에 갇힌 채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어린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그 모임은 내 삶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찬식 모임이 되었다.

의사들은 끝내 드루의 문제를 찾아내지 못했고, 드루는 증상을 가라앉힐 약을 처방받은 후 이튿날 퇴원했다. 그 후로 그 증세가 다시 나타난 적은 없었다. 그러나 나는 그 성탄절 성찬식 모임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

캐리 케첩, 미국 네바다 주



치 흥 (샘) 왕
장로
칠십인 정원회

신앙, 소망, 사랑:

하나로 엮여 있는 덕목

물 문경의 모로나이서는 10개의 장으로만 이루어져 비교적 짧지만, 훌륭한 권고가 많이 실려 있습니다. 모로나이와 물문은 모두 복음에 담긴 소중한 원리를 가르칩니다. 모로나이는 부친이 간추린 물문경을 완성하는 동안 신앙, 소망, 사랑 사이의 연관성에 관한 부친의 가르침을 거듭 언급합니다. 물문과 모로나이는 이 세 가지 원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물문경을 공부하면서 전에는 보통 이 세 가지 원리를 블록을 쌓는 것처럼 여겼습니다. 신앙이 맨 먼저 오고, 그다음에 소망, 또 그다음에 사랑이 따릅니다. 그게 논리에 맞는 진보 과정처럼 보였습니다. 신앙이 자라면 연구와 지식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소망의 원리를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신앙과 소망은 함께 우리의 인격을 형성하고, 우리를 구주께서 걸으신 길로 인도하며, 그럼으로써 우리는 사랑의

자질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는 더 최근에 물문경을 공부하면서 신앙, 소망, 사랑을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세 가지가 하나로 엮여 있는 덕목이자, 우리의 신앙을 나타내고 발전시키는 면에서 각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딸 조이는 풍선들을 비틀고 꼬아 동물과 물건 만들기를 좋아합니다. 어느 날 딸 아이가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다가 어떻게 몇 가닥 실을 꼬아 끈을 만드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몇 가닥 실이 서로 결합하여 튼실한 끈이 되는 것은 제가 신앙, 소망, 사랑에 관해 새로 이해하게 된 바를 시각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신앙: “능력을 갖게 되리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지상에서의 삶을 살기 위한

일상생활에 신앙,
소망, 사랑을 함께
접목할 때,
우리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따르는 자가 됩니다.

토대가 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되, 만일 너희가 나를 믿는 신앙을 가지면 내게 합당한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리라.”(모로나이서 7:33) 저는 제 인생에서 신앙을 통한 이 능력을 여러 번 적용해 보았습니다. 또 신앙에 의존하여 몇 가지 어려운 순간들을 헤쳐 나갔습니다.



브리검 영 대학교 하와이 캠퍼스에서 수학하던 시절, 저는 새로운 환경에 처해 있었으며 영어는 제 모국어가 아니었습니다. 힘겨운 시기였고, 장학금을 계속 받으려면 학업 면에서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장학금을 받지 못하면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밖에도, 일요일에는 공부하지 않겠노라고 다짐한 바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교리와 성약을 읽다가 특별한 성구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109편 7절을 읽는 도중에 다음 구절이 눈에 띄었습니다. “참으로 연구와 또한 신앙으로 학문을 구하라.” 이 성구는 제가 학업에서 성공하는 데 열쇠가 되었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일주일 중 6일을 부지런히 공부하자 학업에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어떤 급우들은 제가 일요일에 자기들처럼 공부하지 않는 데도 어떻게 그토록 잘할 수 있는지 의아해했습니다. 저는 신앙으로 배우면 여러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직업 면에서 경력을 쌓는 동안에도 이와 유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너무나 좋은 일자리를 제안받은 적이 있었는데, 일요일에 일해야 할 가능성이 큰 직장이었습니다. 저는 안식일에는 일하지 않기로 다짐했기에, 결국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겠다는 약속을 타협할 수는 없었습니다. 대학 시절의 다짐으로 축복을 받았듯이, 나중에 저는 다른 여러 사업 기회를 축복으로 받았는데 타협할 필요도 없고 일요일을 주님을 예배하는데 바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우리를 하늘의 축복과 연결하는 가상의 끈을 만들 때, 튼튼한 신앙 한 가닥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소망: “영생으로 일으키심을 받으리라는”

우리는 많은 것을 소망합니다. 직업 면에서 발전하기를, 자녀가 잘 생활하기를, 기대에 맞게 교회에서 봉사하기를, 건강을 유지하기를, 삶을 영위하고 가족을 부양하는 데 필요한

것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가장 고귀한 형태의 소망은 어디에서 오며, 또 그 소망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할까요?

물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 교회에 속하여 있으며, 화평한 중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이때로부터 하늘에서 그와 함께 안식하게 될 때까지 주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넉넉한 소망을 얻은 너희에게 [나는] 말하고자 하노라.”(모로나이서 7:3)

물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참되게 따르는 자가 되라는 권유를 계속하다가 다시금 소망이라는 주제로 돌아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또 너희가 바라야 할 바는 무엇이냐?” 그리고는 너무나 중요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줍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속죄와 그의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영생으로 일으키심을 받으리라는 소망을 가져야 할지니, 이는 약속대로 그를 믿는 너희의 신앙으로 인한 것이니라.”(모로나이서 7:41)

이런 종류의 소망은 일반적인 소망과는 사뭇 다릅니다. 이 신성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옵니다. 그것은 영원한 소망입니다. 그런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이 모든 놀라운 축복이 우리 손이 닿는 곳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매주 교회에 나올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가진 소망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 영생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제일회장단 제1보좌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님은 최근 연차 대회 말씀에서 이렇게 언급하셨습니다. “아버지,



당신 아들의 속죄 희생을 통해, 우리가 아버지께 돌아가는 험한 길을 걷는 동안 위로가 될 희망을 선사하셨습니다.”¹ 우리는 소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실하게 생활하고 온 마음과 능력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그분을 섬길 때 축복과 기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해와 더불어, 우리의 끈에 소망이라는 가닥을 추가합니다.

사랑: 참되게 따르는 자에게 내려주시는

우리의 끈을 더욱 강하게 하는 세 번째 덕목은 사랑입니다. 우리는 구주를 닮으려는 진심 어린 노력을 통해 사랑의 은사를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은사의 온전한 분량은 우리가 기도로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 주십니다. 우리가 생명을 주신 그분을 따를 때, 비로소 사랑, 즉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모로나아서 7:47)의 참된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물론은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마음의 힘을 다해 아버지께 기도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따르는 자 모두에게 내려주시는 이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며,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지어다.]”(모로나아서 7:48) 우리는 *화평한 중에 따르는 자*로서 넉넉한 소망을 얻었을지라도 사랑의 은사를 내려받으려면 *참되게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참되게 따르는 자가* 될 때, 우리는 좀 더 *그분처럼 될 것*이며, 이는 인생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을 심으면, 이웃과 하나님을 섬기려는 거룩한 사랑의 자질을 갖출 가능성이 더욱 커집니다. “만일 사람이 온유하고 마음이 겸손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성신의 권능으로 시인하려면, 그는 반드시 사랑을 가져야만 하나니, 이는 만일 그에게 사랑이 없으면 그가 아무것도 아님이라. 그런즉 그는 반드시 사랑을 가져야만 하느니라.”(모로나아서 7:44)

이제 끈을 이루는 데 필수적인 세 가닥이 모였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함께 작용하는지 살펴봅시다.

세 가지가 모두 함께 작용한다

“그런즉 반드시 신앙이 있어야 하며, 반드시 신앙이 있어야 할진대 또한 반드시 소망이 있어야 하며, 반드시 소망이 있어야 할진대 또한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하느니라.

또 너희에게 사랑이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원받을 수 없고, 너희에게 신앙이 없어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원받을 수 없으며, 너희에게 소망이 없어도 구원받을 수 없느니라.”(모로나아서 10:20~21)

신앙, 소망, 사랑이 결합할 때, 그것들은 제게 더이상 하나씩 쌓아올리는 블록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서로 엮이고 뒤얽힌 하나의 덕목이 됩니다. 우리는 신앙 쌓기를 마친 다음에 소망을 얻거나, 소망을 얻은 후에야 마지막으로 사랑을 키우지는 않습니다. 이들은 모두 함께 작용합니다. 그 세 가지가 서로 엮일 때, 그것들은 총체적으로 우리의 성품과 간증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

주
1. 헨리 비 아이어링, “보혜사”, *리아호나*, 2015년 5월호, 20쪽.

행복한 결말을 향하여!

유리 큐테포프

교회 회원이 된 지 10년이 되자, 나는 동반자를 찾기 시작해야 한다는 확신이 들었다. 나는 해의 왕국의 결혼에 관한 교리를 이해하고 있었고, 해의 왕국의 결혼을 하고 가족을 꾸릴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했다. 어떻게 해야 당시 내가 살던 러시아 사마라에서 후기 성도 여성을 찾을 수 있을지 막막했지만, 나는 주님께서 도와주시리라는 것을 믿었다.(니파이전서 3:7참조)

2009년, 나는 러시아 사마라 선교부 지역의 10개 도시에서 열리는 몇몇 청년 대회에 초대받았다. 내 바람은 이러한 활동을 계기로 영원한 동반자를 만나는 것이었다.

청년 대회에 참석한 것은 즐겁기도 하고 여러모로 만족스러운 일이었지만, 데이트는 한 번도 못 한 채 여러 달이 흘렀다.

나는 걱정이 되기 시작하여 주님께 도움을 구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으로,

교회 밖에서 배우자를 찾아도 된다는 유혹을 받으리라는 경고의 음성이 마음속에 들려왔다.

나는 성전에서 결혼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선지자의 가르침을 알고 있었으며, 배우자와 하나 되어 구주를 따르고자 노력하지 않는다면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없으리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나는 그러한 유혹에 맞서 싸울 영적인 힘을 지닐 수 있도록, 또한 주님께서 나를 위해 마련해 주신 계획을 따를 때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했다.

그리는 한편, 늘 하던 것처럼 핀란드 헬싱키 성전에 가서 일주일을 지내다 올 준비를 시작했다.

나는 기차에서 세 명의 여행자를 만났는데, 그중에는 마리아라는 미혼 여성도 있었다. 마리아는 외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었으며, 나는 왜 내가 여태 이런 사람을 못 만났는지 의아하기까지 했다. 그런데

영원한 동반자를 찾으려고 기도해 왔지만, 성전으로 가는 기차의 내 옆자리에 그녀가 앉아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 했다.

교회 밖에서 사람을 찾아도 된다는 유혹이 있으리라는 경고가 떠올랐다.

나는 생각했다. “강해져야 해. 내 원칙에 충실해야 해. 교회 안에서 합당하고 훌륭한 자매를 찾을 수 있을 거야.”

나는 적어도 훌륭한 회원 선교사로서 그녀와 복음을 나누는 것은 괜찮으리라 생각했고, 영감을 구하며 물몬경을

읽으려고 꺼내 들었다. 마리아가 관심을 가질지 궁금했다. 놀랍게도 마리아는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것 같아요!”

눈을 들어 보니 그녀도 손에 물몬경을 들고 있었다. 마리아 역시 교회 회원이었고 성전에 가는 길이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버스를 타고 헬싱키까지 여행을 계속했다. 마리아는 러시아 모스크바 서 선교부 구역에 있는 보로네시라는 도시에서 왔다고 했다. 한눈에 그녀에게 반한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마음을 다해 기도했다. 그러자 마음속에 좋은 느낌이 들었다.

나는 기도했다. “주님, 저희가 성전에 있을 시간은 일주일뿐입니다. 그동안 서로 더 가까워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되었다. 성전 의식을 받고 다음 의식을 기다릴 때면, 우리는 함께 걷고 식사하고 교회 물품 판매점에 가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주말이 되어 우리는 집으로 돌아갔다. 마리아는 보로네시로, 나는 사마라로 말이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 더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에 두 도시를 오갔고, 2010년 9월 14일, 새로 헌납된 우크라이나 키예프 성전에서 결혼했다.

현재 마리아와 나는 보로네시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 사람들은 “그 후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라는 말은 동화어나 나오는 결말로 생각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도 우리는 성전 성약을 지키고, 결혼 생활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힘써 노력함으로써

끊임없이 주님께 충실성을 증명하며 우리만의 행복한 결말을 만들어 낸다.

우리가 기적적으로 만날 수 있었음을 감사드린다.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가 영원한 동반자를 찾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힘이 되기를 소망한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와 다르게 전개될지도 모르지만, 마리아와 나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든지 주님께서 우리의 진실한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염려하신다. 주님께 의지하면, 주님은 우리가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모든 것이 함께 역사하게 하실 것이다.(교리와 성약 90:24 참조) ■

글쓴이는 러시아 보로네시에 산다.



행복으로 인도하는 주님의 지도

“우리는 모두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 후 영원토록 행복하게’ 사는 삶을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진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적지에 이르는 방법을 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위해 지도를 제작하셨고, 그 길을 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유익과 행복을 추구하십니다. 그분은 아버지로서 완전하고 순수한 사랑으로 여러분이 하늘 목적지에 도달하기를 바라십니다. 누구나 그 지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그 후 영원토록 행복하게 사는 여러분의 삶”, *리아호나*, 2010년 5월호, 126~127쪽.





어떤 힘을 선택할 것인가

마이클 피켓

어느 날 나는 한 남자에게 걸려 온 전화로 몹시 들떠 있었다. 남자는 보디빌딩 대회에서 나를 보았다며 나를 후원하고 싶다고 했다. 그는 내 복장과 단백질 보충제 비용을 대 주는 것은 물론, 유럽에서 열리는 대회에도 보내 주겠다고 했다. 게다가 내가 잡지에 실릴 수도 있다고 했다. 나는 보디빌딩에 푹 빠져 있었고, 그것은 내 꿈이기도 했다! 유일한 걸림돌이라면, 내가 바로 며칠 전에 선교사 추천서를 보냈다는 것이었다. 남자에게는 제안을 고려해 보고 다시 전화하겠다고 했다.

내 생애 가장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우리 부모님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않으셨다. 부모님은 말씀하셨다. “선교 사업 후에 이런 기회가 또 찾아올 게다.” 하지만 나는 그 생각을 떨쳐 버릴 수가 없었다. 선교사로 나가 주님께 봉사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바로 눈앞에서 이제 내 꿈이 펼쳐지려는 참이었다.

나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여러 친구에게 물어보았다. 어떤 친구들은 후원을 받아야 한다고 했고, 또 어떤 친구들은 내가 선교 사업을 하길 바라지 않는 사탄이 일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훌륭한 친구 하나가 에즈라 태프트 벤슨(1899~1994) 회장님의 말씀을 들려주었다. “하나님께서 돌이킨 생활을 하는 남성과 여성은 [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보다] 삶에서 더 많은 것을 얻게 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기쁨을 배가해 주시고 시야를 넓혀 주시며, 마음을 깨우치고 몸의 근육을 강화해 주시며, 영혼을 고취하고

축복을 몇 배로 늘려 주시며, 기회의 문을 넓혀 주시고 영혼을 위로하시며, 친구들을 북돋워 주시고 평안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¹

정말 가슴 깊이 파고드는 말씀이었다. 내가 읽었던 몰몬경 구절도 그랬다. “만일 사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진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양육하시며 그들을 강하게 하시고 그들이 그가 명하신 일을 성취할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해 주시는도다.”(니파이전서 17:3)

이 말씀과 성구, 그리고 친구들과 가족들의 지지에 힘입어 나는 선교 사업을 나가기로 했고, 볼리비아 코차밤바 선교부에서 봉사하도록 부름받았다.

선교사로 봉사한 것은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 나는 선교사로 봉사하는 동안 짧은 기간에 스페인어를 배우는 축복을 받았고, 그 밖에도 셀 수 없이 많은 축복을 받았다.

주님께서서는 우리 가족도 축복하셨다. 선교 사업을 하는 동안 부모님은 이메일로 형이 12년 만에 처음으로 교회에 갔다는 소식을 전해 주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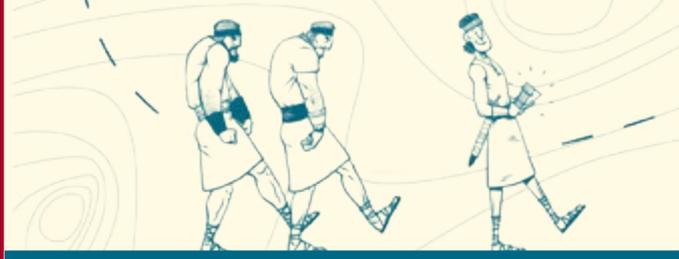
이후에 형은 매주 안식일에 교회에 가려고 업무 일정까지 바꾸었으며, 몰몬경을 읽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어려움을 겪던 남동생도 자신의 생활에서 몇 가지 변화를 결심하면서 신앙이 강해졌다. 한 사촌은 다시 활동 회원이 되어 매주 성전에 가서 죽은 자를 위한 침례를 받기 시작했다. 진정 우리 가족은 큰 축복을 얻었다. ■

글쓴이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산다.

주

1.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에즈라 태프트 벤슨(2014), 42~43쪽; 강조체 추가.

선교사로 봉사할 것인가,
전문 보디빌더가 될 것인가?
나는 경전 구절과 친구가
들려준 말씀 덕분에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



진정한 액션 히어로가 되자

살럿 라카발
교회 잡지

자 신이 제일 좋아하는 액션 히어로를 떠올려 보자. 준비, 시작! 무시무시한 적에 맞서 싸우는 용감한 히어로를 떠올렸는가? 아니면, 그럴싸한 머리 모양을 한 근사한 모험가? 경전 속 인물들은 어떤가?

니파이, 노아, 에이비시, 베드로를 생각해 보자. 유행하는 멋진 구호를 외치며 맨주먹으로 적의 무리를 물리친 것은 아니지만,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액션 히어로가 아닌가! 신앙을 행사하고, 하나님을 신뢰했으며, 행동하고 실행했으니 말이다. 그들은 생각만 하지 않고 행동[action]으로 옮겼다.

확실하게 하나하나 지시받지 못해서 시작을 꺼릴 때가 있는가? 여러분의 반이나 정월회에는 교회에 나오지 않는 친구들이 있을 것이다. 정확히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라서

삽화: 제프 하비; 테두리 그림 출처: iSTOCK/THINKSTOCK

힘써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것은 지켜보기만 하는 것과는 다르다. 자리에서 일어나 무언가 실행해 보자!

그 친구들에게 손길을 내밀기가 망설여지는가? 물론 영감은 중요하고, 우리는 늘 영감을 구해야 한다. 하지만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 먼저 자리에서 앉아서 천사가 문자 메시지라도 보내 주기를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이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 주기를 바라신다. 그분은 우리가 나아가 행동하기를 원하신다!

니파이, 노아, 에이비시, 베드로가 기다리기만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들이 맡은 일은 하나같이 힘든 것들이었다. 그들이 음료와 쿠키나 먹으며 다음 지시를 받을 때까지 앉아 기다리기만 했다고 생각해 보라. 결과는 매우 달라졌을 것이다.

기다려 보겠나?

“내가 기다렸다가 주께서 명하신 일들을 행하겠나이다. 이는 주께서 사람들의 자녀들을 위해 길을 예비하실 것이 아니고는 아무 명령도 주지 아니하심을 내가 앎이니이다. 그런즉, 그 길을 정확하게 알 때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겠나이다.”(니파이전서 3:7을 재구성한 가상의 구절)

리하이의 가족이 예루살렘의 집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주님은 리하이의 아들들에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라반이 가진 판을 가져오라고 명하셨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은 어떻게 판을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귀뜸도 하지 않으셨다. 니파이와 형들이 아는 것이라고는 주님께서 판을 가져오라고 명하셨다는 사실뿐이었다. 어떻게 해야 맡은 일을 해낼 수 있을지 몰라 앞이 깜깜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레이맨과 레뮤엘도 바로 그런 이유로 불평을 했을 것이다!) 지혜를 발휘하고,

신앙을 행사하며, 나아가 실행에 옮기는 것은 온전히 니파이의 몫이었다. 하지만 니파이가 주저앉아 꾸물대고만 있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계획을 알려 주실 때까지 움직이고 부딪혀 보려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판을 가져오는 일은 만만치 않았다! 니파이와 형들이 두 번이나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간 일이었다! 니파이가 예루살렘 성벽에 기대고 앉아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 주시지만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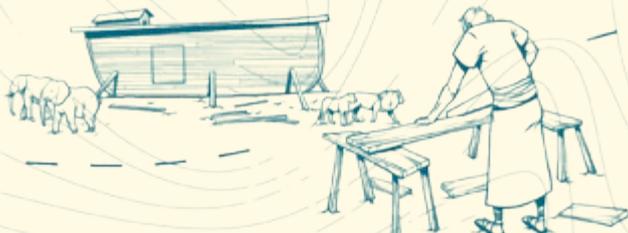
판은 여태 라반의 보물고에 있었을지도 모른다. 니파이가 기다리지 않았기에 정말 다행이었다.

그저 기다리는 대신, 그는 영을 따랐다. “해야 할 일을 미리 알지 못한 채 ... 나는 앞으로 나아갔[느니라.]”라는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말이다.(니파이전서 4:6~7; 강조체 추가) 니파이는 마냥 기다리지 않았으며, 불확실한 것들에 발목이 잡혀 행동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께서 방법을 마련해 주시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믿음은 틀리지 않았다. 니파이가 움직여 행동을 취하고 힘써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하자, 주님은 그를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셨다.

그런데 왜?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일마다] 의문을 품더라.”(창세기 7장 5절을 재구성한 가상의 구절)

하나님께서 면밀한 지시를 내리실 때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 예로 노아를 살펴보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하시며, 방주의 치수와 방주에 들어갈 자재는 물론, 방주에 오를 승객의 명단까지도 말씀해 주셨다. 여러분도





이렇게 구체적인 권고를 받은 적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모두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소책자에 나오는 원리들같이 세세한 계명을 받아 보았다. 하지만 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주저할 때가 있었는가? 주님의 말에 순종하는 대신 의문을 품어 봐야 한다는 유혹에 빠져 본 적이 있었는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난 노아가, “그런데 왜 그런 거죠? 이해가 안 되는데요.”라고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가 그 일을 정말 하나님께서 지시하셨을지를 끊임없이 의심하며, 주님께서 홍수를 일으키시려는 이유를 확실하게 이해하기 전에는 꾀꼬리도 하지 않겠다고 평상이나 드러누워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홍수는 있었겠지만, 방주도 있었을까? 인간이 살아남았을 수 있었을까? 노아가 가만히 앉아서 만사를 의심하고 있지 않았기에 정말 다행이었다.

그러는 대신, 노아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창세기 7:5) 노아는 의문을 품지 않고 신앙에 따라 행동했다. 올바른 마음가짐에서라면 의문은 득이 된다. 의문은 우리를 더욱 성장하게 하며 더 많은 진리로 이끌어 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바라는 답을 얻을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런 의문들에 발목을 잡히고 말 것이다. 노아도 의아한 점이 많았을 것이다. 그래도 그는 그것 때문에 멈추지 않았다. 이상하게 보일지라도, 그는 마른 땅 위에 배를 지어 모든 동물을 한데 모으고 방주 안에 가족들을 태웠다. 비가 내리기 시작하자, 분명 노아는 자신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 매우 기뻐할 것이다. 노아는 신앙에 따라 행동했고, 하나님은 그는 물론 그의 가족도 축복하셨다.

물러서서 지켜보겠다?

“라모나이의 종들이 모두 땅에 쓰러 ... 져 있는 것을 그가 보고 ...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인 줄 알고 생각하기를, ... 이 광경을 바라봄으로써,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권능을 믿게 [될] 것이라 [생각하였으나,] 그가 물러서서 다른 누군가가 사람들을 모으기를 바라고 있었더라.”(엘마서 19장 17절을 재구성한 가상의 구절)

에이비시는 레이맨인 여인이었다. 주님께 개종한 지는 수년이 흘렀으나, 불신앙에 빠진 레이맨인들 속에 살았던지라 그녀는 마음속으로만 신앙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암몬이 라모나이 왕을 가르쳤고, 왕과 왕의 가족들은 모두 주님의 권능에 압도되었다. 에이비시는 드디어 친구와 이웃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눈으로 확인하고 믿게 될 기회가 왔음을 알아차렸다. 이 기적을 목격할 사람을 모으는 일은 그녀에게 달려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수년 동안 신앙을 감추고 살아온 터라 모두에게 이 소식을 전하겠다고 이 집 저 집을 뛰어다닌다는 것은 조금 두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입을 열어 말을 해야겠다는 느낌이 들었다가도 이내 긴장이 되어 망설였던 일이 있는가? 믿음을 나누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는 일이다! 하지만 만약 에이비시가 물러선 채 그저 우연히라도 사람들이 그 장면을 목격하기만 바라고 있었다면, 또는, 다른 누군가가 가서 무슨 말이라도 전하기만을 바라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랬더라면 라모나이 왕과 그의 식구들이 죽은 듯이 땅에 누워 있던 모습이나, 그들이 기적같이 회복한 모습을 보려 온 이는 없었을 것이다. 또한, 그곳에서 라모나이 왕과 여왕, 그리고 암몬이 복음을 가르치는 것을 들을 이도 없었을 것이다.

에이비시가 그저 물러나 있지 않았기에 정말 다행이었다. 에이비시는 “집집마다 뛰어다니며 이를 백성들에게 알렸[다].”(엘마서 19:17; 강조체 추가) 주님께 대한 간증이 있었던 에이비시는 두려움 때문에 멈추지 않았다. 누군가 자기 대신 말을 전해 주기를 기다리지도 않았다. 기회가 왔을 때,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뛰었다! 에이비시는 행동했고, 주님께서는 그녀에게 동포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개종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엘마서 19장 참조)

세상의 말을 듣겠다?

“[예수께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 앉아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려 하지 않더라.”(마태복음 14장 29절을 재구성한 가상의 구절)

어부였던 베드로는 배를 잘 알고 있었다. 가령, 베드로는 바다에 거친 풍량이 일 때는 배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다. 그는 사람이 물 위에 발을 디디면 바로 가라앉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런 그가 물 위를 걷는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상상이 되는가?

하지만 그가 그냥 배 안에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사람이 물 위를 걷지 못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베드로가 세상이 “아는” 지식에만 신경 썼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리스도와 선지자들의 가르침은 때로 세상의 말과 어긋나 보일 때가 있다. 세상의 말은 설득력이 있고 귀담아듣기도 좋다. 만약, 베드로가 그리스도께 물 위를

걷는 것은 과학적이거나 논리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리스도께 걸어가려는데 베드로가 발을 내딛기를 겁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는 주님과 함께할 놀라운 경험을 놓치고 말았을 것이다. 또한, 신앙을 키울 기회를 놓쳐 버렸을 것이며, 그 이후 결단력이 필요할 때가 왔을 때 자신의 신앙을 의심하게 됐을 지도 모른다. 베드로가 배 안에 머무르지 않았기에 정말 다행이었다. 베드로는 파도와 폭풍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바다에서 쌓았던 자신의 경험을 개의치 않고 배 밖으로 뛰어내려 그리스도께 다가가려고 했다. 그는 세상의 “지식”을 모두 내려놓고 물 위를 걸었다. 심지어 물에 빠질 뻔하기도 했지만, 그를 잡아 주실 그리스도가 곁에 계셨다.(마태복음 14:28~31 참조)

내가 액션 히어로라고?

우리는 흥미진진한 인생에서 액션 히어로가 되기 위해 이곳에 왔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루가 멀다고 폭발하는 건물에서 뛰어내리거나, 추격당하는 차를 몰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 대신, 우리는 선택하고 행동하며 힘써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주님께서는 “모름지기 훌륭한 대업에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라고 가르치셨다. 주님은 그 훌륭한 대업이 무엇인지 정확히는 말씀하지 않으시지만, “[우리가] 자유의사로 많은 일을 행[하며] 많은 의를 이룩”(교리와 성약 58:27)하기를 바라신다. 즉, 주님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문제를 결정하고, 어떻게 의를 이룩할지 그 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신다. 도움의 손길은 신앙을 행사하여 첫발을 내디디고 나서야 주어지곤 한다.

주님은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인도해 주시고자 항상 같은 자리에 계신다. 그렇지만 스스로 행동하며 힘써 나아가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세한 것까지 다 알려주시기만 기대한다면, 우리는 “게으르고 현명하지 못한 종”(교리와 성약 58:26 참조)이 되고 말 것이다. 액션 히어로가 될 수 있는데도 게으른 종이 되고 싶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



경전 공부가 너무 힘듭니다. 경전을 공부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는 올해 상호 향상 모임 주제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군건함을 지니고 힘써 앞으로 나아가는”(니파이후서
31:20) 법을 배웠다. 이 구절은 힘써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흡족히 취[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가르친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다음은
경전을 공부하는 몇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힘써 앞으로 나아가는 데
다짐돌이 되어 줄 것이다.

-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경전을 부지런히 공부한다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서 유혹을 피하고 성신의 지시를 받을 수 있는 힘이 커질 것입니다.”(“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리아호나*, 2009년 5월호, 68쪽)
- 기도하는 마음으로 경전을 공부할 때 간증이 생기고 신앙이 강화될 수 있다. 특히, 몰몬경을 공부하고 그 책이 참되다는 간증이 생기면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조셉 스미스가 선지자였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가 참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몰몬경의 소개 부분에 이러한 약속이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
- 경전을 읽으면 우리가 궁금해하는 문제에 관해 개인적인 영감과 응답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경전과 영을 통해 우리와 소통하실 때, 우리는 어떤 장애도 극복하고 힘써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확신을 얻고 그렇게 할 힘을 얻을 수 있다.
- 경전을 공부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며 그분의 모범과 가르침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경전에서 배우기 때문일 것이다. 경전에서 읽은 원리대로 생활한다면 더욱 구주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질문에 답을 줍니다

저는 질문이 생기면 경전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경전은 주님의 말씀이며,

그분의 교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언제 어떤 반대에 부딪히더라도 경전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경전은 여러 주제에 대한 교회의 관점이 궁금할 때 답을 주기도 합니다. 주의 깊게 경전을 읽는다면, 선과 악을 분별하도록 이끌어 주는 성신과 함께할 수 있음을 압니다.

에밀리 에이, 17세, 미국 워싱턴 주

짐이 가벼워졌어요

어느 해인가 생활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로 마음이 짓눌리는 듯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기도를 하고 나서 10분 동안 몰몬경을 읽었어요. 경전을 읽자 가슴속에서 놀라우리만치 따뜻한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어려움 속에서도 사랑받고 위로받고 있으며, 제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게 큰 평안을 느낀 건 처음이었어요. 이 일로, 마침내 저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요한복음 14:27)라고 하셨던 구주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 후로 몇 주 동안 여러 번 이런 경험이 거듭되었고, 저는 덕분에 힘겨운 고비를 넘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어요.

클로이 케이, 18세, 미국 위스콘신 주

변화를 일으키는 힘

전에는 정말 몰몬경에 대한 간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신의 인도를 구하며 진지하게 기도하자 몰몬경에



대해 진정 좋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몰몬경이 참되다는 것을 알기 바라던 터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몰몬경을 읽고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말씀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 몰몬경이 참되다는 개인적인 계시를 받게 되었습니다.(니파이후서 28:30 참조)
저는 몰몬경이 좋습니다. 저는 몰몬경을 공부하며 얻는 가르침을 소중히 간직합니다. 몰몬경에는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아리엘 칸다완 티, 18세, 필리핀



하나님의 사랑

경전에 담긴 권능과 가르침 같은 것들 덕분에 저는 민감하게 성령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경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가르치는 데 쓰시는 신성한 권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외롭거나 버림받은 느낌이 들 때면 경전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당신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알려 주시고자 특별히 우리를 위해 경전을 보존하셨습니다.

스cott 에이처, 19세, 미국 위스콘신 주

선과 빛

저는 낱별반이 되고서야 처음으로 몰몬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몰몬경을 다 읽자 그것으로 다 된 줄 알았죠. 하지만 그건 틀린 생각이었어요. 제 삶에서 무엇인가 빠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다시 몰몬경을 읽기로 했고, 이번에는 더 주의를 기울였어요. 그렇게 하자, 몰몬경 읽기를 마친 뒤 사라져 버렸던 빛이 제 삶을

가득 채워 주었어요. 저는 몰몬경을 더 이해하게 되었고 그 책을 정말 사랑하게 되었어요. 항상 몰몬경을 읽으세요. 그러면 삶이 선과 빛으로 가득해질 거예요.

캘리 엠, 15세, 미국 유타 주



유혹을 극복하는 열쇠

경전을 공부하면 학교에서 복음대로 생활하는 데 큰 힘이 돼요. 저는 이제 막 중학생이 되었는데 주변에 나쁜 것도 많고 유혹도 많아요. 유혹을 이기기 힘들 때면 저는 제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경전 이야기를 읽으려고 해요. 그렇게 하면 유혹을 떨치고 복음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블레이크 시, 12세, 미국 아이다호 주

경전의 권능

저는 이번에 처음으로 몰몬경을 읽어 보고 있는데, 니파이후서 25~33장이 가장 좋아요. 지금까지 제게 가장 큰 격려와 힘이 된 장들이에요. 처음으로 “Scripture Power[경전의 힘]”라는 초등학교 노래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지식의 원천

“우리는 영적인 지식이 매일 굶주리고 목말라야 합니다. 이러한 영적 지식은 경전 공부와 명상, 기도를 할 때 찾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오늘은 경전 공부할 필요가 없어, 전에 다 읽어 봤잖아.’ ... 하는 생각으로 유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하지만 복음은 마르지 않는 지식의 원천입니다. ... 경전의 모든 구절에는 배우고 느낄 새로운 것이 항상 있습니다.”

제랄드 코세 감독, 감리 감독, “여전히 경이롭습니까?”, 리아호나, 2015년 5월호, 99~100쪽.

저는 몰몬경이 참되다는 것을 간증하며, 꼭 매일 몰몬경을 공부하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새라이아 제이, 13세, 미국 애리조나 주

다음 질문

“중요한 문제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응답을 받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응답을 받은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과 고화질 사진을(원할 경우) 2017년 1월 15일까지 iahona.lds.org로 제출하거나 (“작품 제출” 클릭) iahona@ldschurch.org로 이메일을 보내 주십시오.

이메일 혹은 우편에 다음 사항과 동의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와드(또는 지부), (4) 스테이크(또는 지방부), (5) 서면 동의서, 18세 미만인 경우 원고와 사진을 출판해도 좋다는 부모 동의서.(이메일도 가능)

표현의 정확성과 분량 조절을 위해 보내 주신 의견을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선물보다 큰 것

무엇을 베푸는 사람이 되고 싶은가?

에멀린 알 윌슨

성 탄 절기의 핵심은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베품의 정신이다. 선물을 주고받는 것도 좋지만, 물질적인 선물보다 훨씬 큰 것을 베풀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매일 시간과 재능, 친절을 베풀 수 있으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의미 있게 봉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이기심을 버리고 타인에게 베풀고 있는가? 다음 퀴즈를 통해 알아보자.

1



학 교에 갈 준비를 하고 있다. 엄마가 아침을 먹으라고 부르신다. 엄마는 시간을 들여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차려 주셨다. 어떻게 하겠는가?

- A.** “아직 덜 준비했던 말이에요!”라고 쓰아붙인 후 학교 갈 준비를 한다. 아침을 늦게 먹는 바람에 버스를 놓쳤으니 엄마가 학교에 데려다주셔야 한다고 한다.
- B.** 서둘러 아침을 먹고 문을 박차고 나간다. 아침 준비는 엄마가 늘 하시는 일이며, 엄마라면 당연히 들 하는 일이다.
- C.** 엄마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준비를 서둘러 가족과 함께 여유 있게 아침을 먹는다.

2



오 전 10시, 선생님이 시험지를 나눠 주시려는 참이다. 옆에 앉은 친구를 잘 아는 것은 아니지만, 가만 보니 그 친구는 정신없이 가방을 뒤지고 있다. 어떻게 하겠는가?

- A. 모른척한다. 나도 긴장하고 있으며, 시험 전에 하나라도 더 봐야 한다.
- B. 시험 잘 보기를 속으로 빌어 준다.
- C. 친구에게 찾는 것이 있는지 물어본다. 연필이 필요하다고 하면 내 연필 하나를 건네주며, 미소와 함께 "이걸 써."라고 말한다.

3



방 과 후에 같은 축구팀 친구가 공을 정확히 패스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 그런데 패스는 내 특기이다. 연습을 마친 친구가 나에게 와서 도와줄 수 있는지 묻는다.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 A. 지금은 너무 바쁘니 다음에 가르쳐 주겠다고 한다.
- B. 마지못해 그러겠다고 하고, 한두 번 함께 연습하며 대충 조언을 해 준다. 그런 뒤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 서둘러 자리를 뜬다.
- C. 충분히 함께 연습하며 조언을 주고, 다음에 다시 함께 연습할 시간을 잡는다.

4



오 후 5시 30분, 여동생에게 줄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야 해서 엄마가 나를 상점에 내려 주신다. 무엇을 사겠는가?

- A. 고민할 것도 없다. 곧장 몇 달 동안 눈독 들여 놓은 새 농구공을 사러 간다. ... 동생도 좋아하겠지?
- B. 동생이 받고 싶다고 한 선물 중에서 제일 저렴한 것을 고른다. 동생도 실망하지 않을 거고 돈도 많이 안 들었다.
- C. 동생이 좋아하는 작가의 신간 도서를 찾아본다. 동생이 선물을 열어 보면 정말 좋아할 텐데, 그 얼굴을 빨리 보고 싶다!



시간이 되었는데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힘들다. 그런데 아직 경전을 안 읽었다. 어떻게 하겠는가?

A. 일요일에 읽었으니 읽은 셈 친다.

B. 경전을 찾다가 좋아하는 소설책이 나온다. 30분이 지나서야 경전을 읽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짧은 구절 하나를 서둘러 읽고 불을 끈다.

C. 경전과 좋아하는 소설이 둘 다 눈에 들어오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우선순위를 두기로 하고 간단히 기도한 후 경전을 읽기 시작한다. 경전을 공부하며 떠오른 생각을 기록하고 다시 한 번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후 잠자리에 든다.

결과!

대부분 **A**를 골랐다면, 다른 이에게 조금 더 관심을 쏟을 필요가 있다. 다른 이를 위해 베풀고 봉사하면, 봉사를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에게 더 큰 기쁨이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한다.(마태복음 25:34~46 참조)

대부분 **B**를 골랐다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마태복음 10:8)는 말씀을 생각해 본다. 더욱 기꺼운 마음으로 베풀다 보면 더 큰 기쁨을 찾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지 생각해 본다.

대부분 **C**를 골랐다면, 계속 정진한다! 여러분의 행동에서는 진정한 성탄절 정신이 엿보인다.

이번 성탄 절기에 어떻게 하면 주위의 사람들에게 마음이 묻어나는 선물을 줄 수 있을지 궁리해 본다. 어떤 재능이라도 좋다. 하루하루 나누는 선물뿐 아니라 선물을 주는 방식을 통해서도 우리는 타인에게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다른 이를 섬길 때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것임을 이해하면 베푸는 것은 축복이지 짐이 아니다.(모사이야서 2:17 참조) ■
글쓴이는 미국 유타 주에 산다.



거저 주라

“저는 우리가 타인에 대한 느낌으로 감동받게 되기를, 강요받는 느낌이나 우리가 받을 이익에 대한 기대 없이 주기를, 그리고 우리의 희생을 통해 다른 사람이 기쁨을 얻게 될 때 그 희생은 기쁘고 즐거운 것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헨리 비 아이어링, 제일회장단 제1보좌, “미래의 가족을 위한 선물을 준비하십시오”, *리아호나*, 2014년 1월호, 49쪽, 번역 수정.

나도 선교사가 필요해

나는 교회의 회원이다. 그렇지만 나도 선교사가 필요했다.

가브리엘 코스타 실바

일 일곱 살이 되자, 내 곁에는 친구가 남아 있지 않았다. 다들 멀리 이사를 했거나, 선교 사업을 하고 있거나, 어느 날 갑자기 사이가 멀어져 있었다. 가족이 있어도 나는 외로웠다. 집 밖에서 내게 힘이 되어 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았고, 애를 써 보아도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는 쉽지 않았다.

하루는 와드에 새로 온 선교사들이 인사차 우리 집을 찾아와서 도움 일이 있는지를 물어보았다. 그저 슬프고 외롭다는 생각에만 빠져 있던 나는 그 말을 귀담아듣지 않았다. 그런데 선교사들은 자신들이 토론을 가르칠 때 내가 가끔 도와주면 좋겠다는 말을 했다. 나는 얼떨떨했다! 정서가 건강하지 않다는 것이 뻔히 보이는 나 같은 사람한테 왜 도와 달라고 하는 거지?

어쨌든 나는 알았다고 했고, 선교사들이 가르치는 토론에 몇 차례 참석했다. 선교사들은 가르치는 사람들을 돕는 데만 그치지 않고 내게도 훌륭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다 장로 한 명이 다른 지역으로 떠나자, 나는 선교사들과 함께하면서부터 내 삶이 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다음으로 온 장로와 나는 공통점이 많았다. 그리고 나는 꾸준히



선교사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선교사들은 나를 격려하고 가르쳤으며, 힘이 돼 주었다. 나는 힘겨운 시간을 보내면서도 그들 덕분에 마음이 한결 가벼웠다. 비록 선교사들은 언어적으로

유창하지도 않았고 늘 바빴지만, 그런 가운데도 나를 도와주려고 노력했다.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나는 혼자서 아님을 깨달았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켜보시며 다른 사람을 통해 나를 돕고 계셨던 것이다.

이 새로운 장로가 떠나던 날, 나는 그에게 주님 손에 들린 도구가 되어 나를 구조해 주어서 고맙다고 전했다. 내가 그 장로와 함께한 것이 축복이었기에, 나는 그가 이 선교부에 있었다는 것이 감사하다.

전에는 선교 사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거의 들지 않았다. 하지만 이 선교사들을 보면서 선교 사업에 대한 내 소망은 점점 커 갔다. 나도 머지않아 선교 사업을 떠날 것이다. 우리 선교사들처럼 나도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싶다.

첫 번째 선교사들이 우리 집을 찾아오기 전, 어느 날 밤인가 외로움을 느껴 기도를 했던 일이 생각난다. 나는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기도했었다. 내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되어 줄 친구를 한 명만 보내 달라고 말이다. 주님은 선교사를 보내 주심으로써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 계시고 선교사는 그분을 섬기는 종이라는 것을 나는 안다. ■
글쓴이는 브라질 상파울루에 산다.

미루지 마십시오

목자들은 메시지를 듣게 되자 미루지 않고 “빨리 가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15~16 참조)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인내심을 갖는 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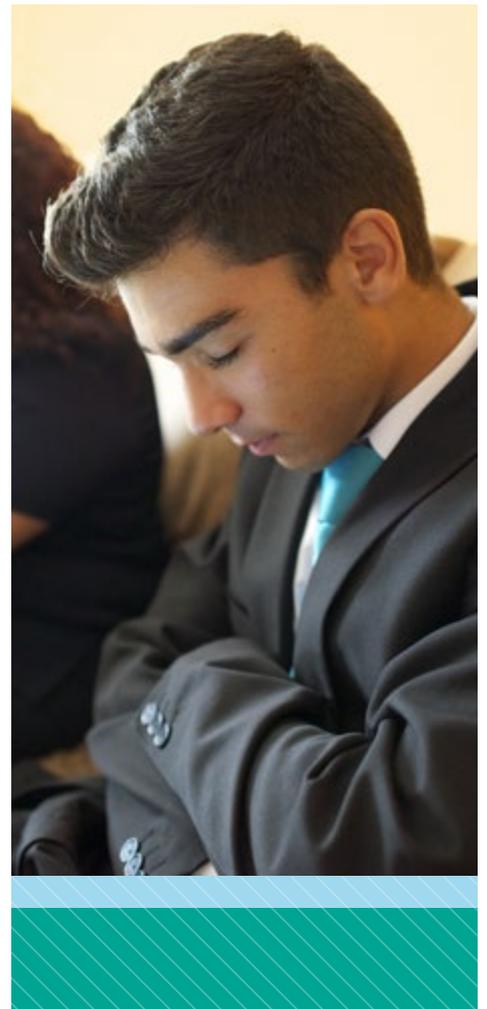
기다리는 일은 어렵습니다. 이것은 어린이도 알고 어른도 압니다. 우리는 패스트푸드를 먹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언제든 원하는 시간에 영화를 보며 사소한든 중요한든 대부분의 의문에 즉각 해답을 얻는 세상에 삽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슈퍼마켓 계산대에서 자기가 선 줄이 옆줄보다 천천히 움직이는 것 때문에 혈압이 오르기도 합니다.

인내심, 즉 우리의 욕구를 일정 기간 동안 참는 능력은 귀중하고 흔치 않은 덕성입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이 있으면 갖고 싶어 하는데, 그것도 당장 갖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인내라는 개념 자체가 불쾌하고 때로는 [고통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인내심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릴 수 없습니다. 온전해질 수도 없습니다. 참으로 인내는 [우리의 생각과 이해를 새롭게 하고], 행복을 더해 주며,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평안에 대한 희망을 주는 정화의 과정입니다.

인내는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란 수동적인 체념이 아니며, 두려움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인내는 적극적으로 기다리고 견디는 일입니다. 무언가를 고수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는 것, 즉 노력하고, 소망하고, 신앙을 행사하고, 어려움을 용기로 감내하며, ... 마음 속 바람이 지연될 때에도 굴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내는 그저 버티는 것이 아니라 훌륭하게 견디는 것입니다! 인내는 무언가를 끝까지 고수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받을 축복을 위해 당장 누리고 싶은 즐거움을 잠시 미루는 일입니다. 화를 다스리고 불친절한 말을 참는 것입니다. 인내는 남들이 악한 것으로 부를 쌓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악한 것을 거부하는 일입니다.

인내는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고 용기와 품위와 신앙으로 그것을 대하는 일입니다. “주께서 합당하게 여겨 [우리]에게 내리시는 모든 것에 기꺼이 복종하고자 하기를, 아이가 참으로 그 아버지에게 복종함같이”(모사이야서



3:19)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인내는 매일, 매 순간, 그렇게 하기 어려울 때에도 “굳건하고 변하지 않으며, 흔들림 없이 주의 계명을 지키[는]” 일입니다.(니파이전서 2:10 참조)

인내로 행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것입니다. 계명을 지키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십시오. 온유함과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구주를 믿는 신앙과 소망을 행사하십시오.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은 우리의 성품을 발전시키고, 우리의 삶을 높이며,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해 줄 것입니다. [인내는] 우리를 ...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실한 제자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2010년 4월 연차 대회 말씀에서 발췌함.

조금 다른 성탄절

엄마를 보지 못하는 것은 힘들겠지만,
성탄절은 변함없이 좋은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올해 크리스마스를 마음 속으로 그리며 그분을 기억하라”
(영문판 어린이 찬송가, 50쪽)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디에고는 그리 신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번 성탄절은 부모님이 이혼하신 후 첫
번째 맞는 성탄절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디에고와 동생 새뮤얼은 이번 크리스마스에 엄마를 만나지도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게 달라졌어요.” 디에고가 아빠에게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다.” 아빠의 눈이 슬퍼
보였습니다. “가끔은 더 나아지기
위해 이런 변화가 찾아오기도
한단다.” 아빠는 잠시
잠자코 계시더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올해 성탄절은
분명 전과
다르겠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좋은 시간을 전혀 보낼 수 없다는 뜻은
아니란다. 우리는 변함없이 구주가 태어나신 걸 축하할 거야.”

디에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를 보지 못하는 것은
힘들겠지만, 아빠 말씀처럼 성탄절은 변함없이 좋은 시간이 될
수도 있을 테니 말입니다. 디에고는 이번 성탄절을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 뭔가 해 보고 싶었습니다.

디에고는 방으로 가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디에고네
가족은 성탄절이 되면 다 같이 봉사 활동을
하곤 했습니다. 이번 해에는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방을 둘러 보는데 이제 가지고
놀이 않는 장난감 자동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동차를
집어 들고 바퀴를 굴려
보니 아직 꽤 쓸
만했습니다.
아빠랑



제인 맥브라이드 초트
실화에 근거함.



새뮤얼이랑 같이 장난감이 없는 친구들에게 장난감을 조금 나누어 주면 될 것 같았습니다! 디에고는 다른 장난감을 몇 개 더 찾아서 자동차와 함께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들고 새뮤얼의 방으로 갔습니다. 디에고는 새뮤얼에게 물었습니다. “네 방 청소 좀 도와줄까? 아빠를 깜짝 놀라게 해 드리는 거야.”

새뮤얼은 그림을 그리다 말고 고개를 들어 형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좋아.”

둘은 함께 새뮤얼의 방을 청소했습니다. 디에고는 새뮤얼에게 장난감을 나누어 줄 계획을 알려 주었습니다. 둘은 청소를 하면서 새뮤얼이 가지고 놀지 않는 장난감 몇 개를 찾았고 그것들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런 후에 가방을 가지고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디에고가 아빠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저희가 이제 가지고 놀지 않는 장난감들을 모아 봤어요. 이걸 장난감이 없는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어도 될까요?”

아빠는 놀라시는 한편 기뻐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구나! 오늘 오후에 그걸 노숙자 보호소에 가져다주자꾸나.”

보호소 방문은 즐거웠습니다. 디에고와 새뮤얼은 아빠가 어른들과 이야기를 하시는 동안 몇몇 아이들과 함께 놀기도 했습니다.

아빠는 집에 오는 길에 이번 성탄절을 특별하게 보내려면 또 무엇을 할지 물어보셨습니다.

디에고가 대답했습니다. “작년 성탄절에는 이웃들에게 나눠 드릴 간식거리를 만들었잖아요.”

아빠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되겠구나. 쿠키 만들 재료를 사러 가 보자.”

새뮤얼은 쿠키를 만들면 아주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디에고와 새뮤얼은 아빠를 도와서 상점에서 쿠키 재료를 샀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반죽을 만들고 별 모양과 나무 모양을 찍어 낸 후, 노랑과 초록으로 쿠키를 장식했습니다. 그러고는 작은 봉투에 쿠키를 담아서 이웃들에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하루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디에고는 피곤했지만 행복했습니다. 디에고와 새뮤얼, 그리고 아빠는 가족으로서 함께했고 다른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아빠가 옳았습니다. 이번 성탄절은 전과는 다르지만, 변함없이 좋은 날이었습니다. ■
글쓴이는 미국 콜로라도 주에 산다.



모범이 되어

우리 아빠는 교회에 다니지 않으셔요. 하지만 저는 아빠 집에 갈 때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생활하는 모범을 보여 드리면서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해요.

대설 피, 6세, 미국 콜로라도 주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생활하는 어린이들

블레시가 나누는 축복

우리 가족은 인도에 살아요.
저는 학교 친구들을 위해 특별한 성탄절 활동을 준비해서 복음을 나누었어요!

1

어린 선교사들

초등학교 선생님은 우리에게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어요. 저는 가끔 친구들을 교회에 초대하지만, 대부분은 싫다고 해요. 저는 제가 선교사가 되기에는 아직 어려서 그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블레시에요!

2

가족이 세운 목표

그러다 가정의 밤 시간에 아빠가 가족들에게 목표를 주시기를, 우리가 한 달에 한 명씩 교회에 초대해 보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아빠께 도와 달라고 했고, 아빠는 기도해 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했어요.



3

좋은 생각

다음 날 학교에 갔는데, 교장 선생님께서 학교에서 성탄절 활동으로 무엇을 하면 좋을지 물으셨어요. 제게 좋은 생각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나이의 모든 친구들이 우리 교회에 오면 좋겠다고 교장 선생님께 말씀드렸죠. 교장 선생님은 제 부모님께 전화를 하시고, 부모님은 감독님과 상의해서 활동을 계획하셨어요. 초등학교 지도자 자매님들과 선교사님들도 도와주셨고요.



4

신나는 날

곧 그날이 왔어요. 저는 긴장도 되고 신이 나기도 했어요. 아빠와 함께 학교에 가 보니 모든 친구들이 준비를 마치고 모여 있었어요. 학생들과 선생님들까지 하면 모두 오백 명쯤 되었을 거예요.



5

다 함께 교회에서

우리는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이야기가 나오는 영상을 보았어요. 청년 성인들과 선교사님들은 성탄절 노래를 불러 주었고요. 저희 아빠와 감독님은 예수님은 어린이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주제로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성탄절에 대해 말씀을 했어요. 모두 즐거워했어요! 교장 선생님과 저희 담임 선생님은 선교사님들께 질문도 하셨답니다.



블레시가 알려 주는,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생활하는 법

- 기도로 도움을 구한다.
- 싫다고 할 것 같은 사람도 교회에 초대한다.
-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리라는 것을 기억한다.

모로나이의 권고

모로나이는 아버지 몰몬이 세상을 떠나자 아버지를 대신해 금판에 기록을 남겼습니다. 신권, 성찬, 그리고 침례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모로나이는 우리에게 몰몬경을 읽고 그것이 참된지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해 보라고 권고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에 귀 기울이면, 성신은 그것이 참된다고 우리에게 알려 줄 것입니다. 모로나이는 금판을 안전하게 보존하려고 그것을 땅속에 묻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빠와 함께 경전을 읽어요. 경전 읽기는 제가 간증을 얻는 데 도움을 줘요.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스펜서 피, 10세,
미국 위스콘신 주



“금판”, 제이콥 디, 11세, 캐나다 노바스코샤

원본 이미지 출처: 제이콥 디, 캐나다 노바스코샤



이 도전 카드를 잘라서 접은 뒤 보관하세요!

나도 모로나이의 권고를 따를 수 있어요!

- 모로나이사 10장 5절을 외운다.
 - 모로나이의 권고대로 해 본다! 성신을 통해 몰몬경이 참된지 알 수 있도록 기도한다.
 - Scripturestories.lds.org에서 몰몬경 이야기 동영상 53, 54를 시청한다.
 - 아래에 나만의 목표를 세우고 실천한다.
-

모로나이

나는 물문경을 읽을 수 있어요.

이달의 경전 구절

각 경전 구절을 읽은 후, 예수님 탄생 그림에서 같은 번호를 찾아 색칠하세요!

1. 니파이전서 11:14~28
2. 니파이후서 19:6
3. 모사이야서 15:1~4
4. 엘마서 5:48
5. 제3니파이 9:15
6. 마태복음 1:19~25
7. 마태복음 2:7~11
8. 누가복음 1:27~31



해리 앤더슨,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는 신지자 이사야 그림의 일부, 삽화: 제프리 벡스틀랜드

마구간을 상상해 보세요

베들레헴으로 간 마리아와 요셉이 하룻밤을 묵으려고 찾아낸 유일한 곳은 마구간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마구간에서 태어나 구유에 놓였어요.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찾아 별을 따라왔어요. 니파이인들도 이 별을 보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알았어요. 우리는 그분의 탄생을 기억하기 위해 성탄절을 기념합니다. ■



데일 지 렌런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어떻게 하면 구주를 더 가까이 느낄 수 있을까요?

구주께서 탄생하신
마구간을 상상해 봅니다.



성찬을 취할 때
구주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용서받도록
그분이 대신 고통을
겪으셨음을 기억합니다.



구주께서 항상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 리아호나, 2016년
5월호, 39~42쪽에서 발췌.

특별한 증인 카드

여기 있는 카드를 이용해서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에 대해 더 알아보세요. 카드를 여러 장 복사해서 짝 맞추기 게임을 해도 좋아요. liahona.lds.org에서 카드를 더 인쇄할 수 있어요.



러셀 엠 넬슨 회장

삼이사도 정원회

- 심장 전문의였다.
- 한국과 일본에서 미 육군 군의관으로 복무했다.
- 자녀가 열 명이다. 아홉 명은 딸이고 한 명이 아들이다.



디이터 에프 우호트도르프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 전쟁 난민이 되어 가족과 함께 서독으로 피난을 갔다.
- 비행기 조종사였다.
- 자녀들과 손주들과 스키를 즐긴다.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 고등학교 시절 농구선수였다.
- 지하실에 있는 걸판을 통해 아버지께 물리를 배웠다.
- 리스 대학의 총장이었다. 리스 대학은 현재 브리검 영 대학교 아이디다호 캠퍼스가 되었다.



토마스 에스 문슨 회장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제16대 회장

- 22세에 감독으로 부름받아 봉사했다. 그 와드에는 남편을 잃고 어렵게 홀로 사는 분들이 많았다.
- 신문을 출판하고 인쇄하는 일을 했다.
- 케나다에서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했다.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삼이사도 정원회

- 영국에서 선교사로 봉사하던 시절에 록 장로의 동반자였다.
- 교회 교육 기구에서 일했다.
- 브리검 영 대학교의 총장이었다.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삼이사도 정원회

- 미국 뉴욕 주에서 자랐다.
- 학교 야구팀의 투수로 활약했다.
- 미 공군의 제트 전투기 조종사였다.



엠 러셀 벨라드 장로

삼이사도 정원회

- 항상 높은 표준을 지켜서 대학 시절에 별명이 "감독"이었다.
- 자동차 대리점을 운영했다.
- 회원들이 선교사가 되도록 독려했다.



델린 에이치 우스 장로

삼이사도 정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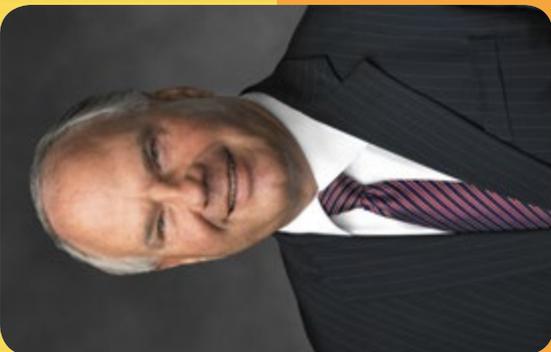
- 첫 일지리는 라디오 수리점을 청소하는 일이었다.
- 변호사가 되었다가 유타 주 대법원 판사가 되었다.
- 브리검 영 대학교의 총장이었다.





선지자와 사도에
관한 이야기를
더 읽어 보려면,

**lds.org/prophets-
and-apostles/what-
are-prophets에 들어가
보세요.**





닐 엘 맨더슨 장로

산이셔도 정원회

- 미국 아이다호 주에 있는 목장에서 지냈다.
- 프랑스에서 선교사로 봉사했고 선교부 회장으로도 봉사했다.
- Mormon.org 사이트의 시작 단계를 이끌었다.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

산이셔도 정원회

- 어렸을 때부터 가족들이 먹을 빵을 손수 만들었다.
- 청소년 시절에 쿠모라산 야외극에 참여했다.
- 아르헨티나에서 선교사로 봉사했고, 당시 그의 선교부 회장은 스크트 장로였다.



쿠엔틴 엘 쿡 장로

산이셔도 정원회

- 형과 함께 기도한 후에 간증을 얻었다.
- 중학교 시절 학생회 회장이었고, 당시 부회장은 지금의 아내인 메리 저매였다.
- 캘리포니아 태평양제도에서 교회 지도자로 봉사했다.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산이셔도 정원회

- 고등학교 미식축구팀에서 쿼터백으로 활약했다.
- 선교 사업을 마친 후 아버지를 침례 주었고, 아버지는 그렇게 교회 회원이 되었다.
- 리스 대학의 총장이었다. 리스 대학은 현재 브리검 영 대학교 아이다호 캠퍼스가 되었다.



테일 지 렌런드 장로

산이셔도 정원회

- 가운데 이름인 거너[Gunnar]는 "용감한 군인"이라는 뜻이다.
- 청소년기에 스웨덴으로 이사했다.
- 심장 전문의였다.



게리 이 스티븐슨 장로

산이셔도 정원회

- 일본에서 선교사로 봉사했고 선교부 회장으로도 봉사했다.
- 운동 기구를 만드는 사업을 시작했다.
- 교회 전체를 감리하는 감독으로 봉사했다.



로널드 에이 래스번드 장로

산이셔도 정원회

- 뉴욕 시에서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했다.
- "사람이 제일이다"라는 좌우명이 있다.
- 체코공화국의 첫 번째 교회 건물을 헌납했다.



우리들 이야기



다니엘라 엠, 9세, 코테스, 온두라스



“아기 나셨네” 소피아 엠, 7세, 온두라스



로언 비, 9세, 브라질 상파울루



파올라는 매일매일 어린이 노래책을 CD로 듣고 여러 곡의 노래를 배웠어요. 파올라는 “선지자 따라”를 정말 좋아해요. 엄마와 함께 물론경 이야기를 읽는 것도 좋아하지요. 얼마 전에는 친척 집에 가서 암몬과 레이맨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파올라 시, 3세, 멕시코 오악사카



이탈리아 로마의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도움의 손길 도안으로 만든 크리스마스 트리

모로나이의 특별한 약속



몰몬에게는 모로나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몰몬이 세상을 떠나자, 모로나이는 아버지를 대신해 금판에 기록을 남겼습니다.

모로나이는 성찬 기도문과 함께, 선한 것은 모두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어린이를 사랑하시며,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을 품기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것도
기록했습니다.



모로나이는 특별한 약속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몰몬경을
읽고 하나님께 여쭙면, 성신이
그것이 참되다고 말해 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런 뒤에 모로나이는
몰몬경이 안전하게 보존되도록
쿠모라 산에 묻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 모로나이는 천사가 되어 지상에 왔습니다. 그리고 조셉 스미스에게 금판이 어디에 묻혀 있는지를 알려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금판을 번역할 수 있는 권능으로 조셉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몰몬경에 기록된 모로나이의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

나는 우리 가족을 사랑해요



삽화: 에이프렐 스토트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하나님의 진정한 본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하신 아버지의 보살핌을 완전히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여러 세대의 선지자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길을 인간 가족에게 가르치려고 노력했으나 대부분의 성공하지 못한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알도록 하기 위한 최후의 조치로,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분의 독생자며 완전한 아들을 지상으로 보내셔서, 일상의 도전 속에서 인간들 가운데에 살며 봉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지상으로 오셔서 엘로힘의 위치에서 그분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대로 말씀하시고, 그분이 행하시고자 하는 대로 판단하고 봉사하시며, 사랑하고 경고하시며, 인내하고 용서하시는 이런 모든 것들은 여러분이나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너무도 위대한 임무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자녀의 특성이 될 충성과 결단으로 예수께서는 거기에 따르는 임무들을 이해하실 수 있었으며 또한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그 후, 칭찬과 명예가 주어지기 시작했을 때, 그분은 겸손하게 모든 칭송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리셨습니다.

“아버지께서 …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주님은 진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요한복음 14:10; 요한복음 5:19] 또 다른 때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느니라.”[요한복음 8:38] …

… 오늘날 일부 사람들은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에 대한 안타까운 오해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믿는데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멀게 느껴지고 심지어는 버림받는다는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약전서와 신약전서 모두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한 명이며, 그 아들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¹ 같은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 바로 그분의 지시 아래 항상 행하신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잘못

읽음으로써(그리고 분명 일부 경우는 번역의 오류 때문에) 현대인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매우 다르게 행동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린 자를 먹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위선자를 꾸짖고 신앙을 호소하는 것,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 하고, 오래 참고 선함으로 가득 찬”² 하나님 아버지의 길을 보여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생애를 통해, 특히 그분의 죽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는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보여 주는 내 자신의 자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니라”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보살핌을 아들이 완벽하게 나타내 보이시는 것을 보고, 그리고 두 분께서 우리 모두의 죄와 마음의 고통을 함께 슬퍼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선언의 궁극적인 의미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요한복음 3:16~17] ■

“하나님의 위대하심”, 리아호나, 2003년 11월호, 70~73쪽에서 발췌함.

주

1. 예를 들어, 니파이전서 10:18; 니파이후서 27:23; 모로나이서 10:19; 교리와 성약 20:12.

2. Lectures on Faith (1985), 42.

통찰



가족: 해의 왕국의 생활 방식

“가족은 그저 이곳 지상에서 만사를 좀 더 편리하게 하는 것도, 하늘에 이르면 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족은 하늘의 질서입니다. 또한, 우리의 가족은 해의 왕국을 상징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을 본뜬 것입니다.”

다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결혼과 가족을 수호하는 이들을 칭송하며”, *리아호나*, 2016년 5월호, 77쪽.

그 밖에도 이번 호에는

청년 성인

신앙, 소망, 사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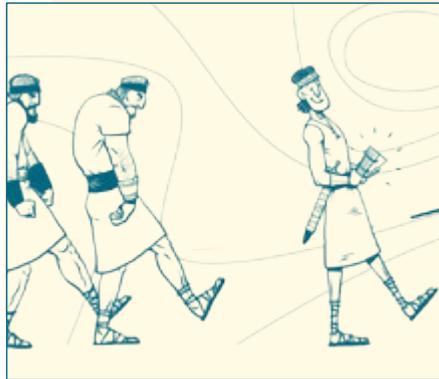
하나로 엮여 있는 덕목

우리는 블록을 쌓듯이 신앙 위에 소망을 쌓고 그 위에 사랑을 쌓을 수는 없다. 이 중요한 덕목들이 하나로 엮여서 함께 작용할 때, 우리는 더 참되게 구주를 따르는 자가 될 수 있다.

44쪽



청소년



진정한 액션 히어로가 되자

52쪽

옛 선지자들이 경전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순종적이지 않았다고 상상해 보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다행히도, 선지자들은 그저 앉아 있기만 하지 않았다. 그들은 마치 슈퍼히어로처럼 움직이고 행동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어린이

조금 다른 성탄절

64쪽

디에고는 엄마 없이 맞게 되는 성탄절이 걱정되었지만, 다른 생각이 떠올랐어요. 바로 다른 사람들이 더 즐거운 성탄절을 보내도록 돕는 것이었죠!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교회

